문화매일신문

제1514호 2024 / 1/ 9 /Tue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 경북도, 영웅을 기억하고 정신을 잇는다

백선엽 장군, 이승만·트루먼 대통령 동상 건립으로 방문객 4배 증가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했고,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수많은 장병이 헌신한 호국보훈의 역사적 숨결이 살아 있는 지역이다.

특히, 지난해는 정전 70주년이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해로써 호국보훈인물을 선양하고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해 위대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호국정신을 계승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경북도는 6.25전쟁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구국영웅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평화 통일의 의지를 다지고자 `23.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백선엽 장군, 이승만·트루먼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호국영웅 동상 건립을 추진했다.

(백선엽 장군 동상 `23. 7. 5. 이승만·트루먼 전 대통령 동상 `23. 7. 27. 각각 제막식)

백선엽 장군은 칠곡 다부동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둬 패배 일로를 걷고 있던 6.25 한국전쟁 전세를 뒤집는 데 공을 세웠으며, 이승만 전 대통령과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한·미 최고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우경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백선엽 장군의 장녀 백남희 여사를 고문으로 한 동상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22.12.21.)되어 총사업비 5.8억원(국비 1.5, 도비 1, 성금 3.3)으로 제작·설치됐다.

국민성금은 모금 2개월 만에 4,335명(1인당 1만원 이상)이 참여하여 목표액(2.5억)을 달성할 정도로 동상 제작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열기는 뜨거웠다.

이승만·트루먼 대통령 동상은 `17년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바르게 평가하고 후손에게 계승하기 위해 민간이 주체가 되어 동상건립추진모임을 구성하고,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을 만든 국내 최고 조각가인 김영원 작가에게 의뢰해 제작됐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의지를 후손들이 알도록 하고 좌우를 떠나 서로를 인정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의지로 대한민국 호국의 성지인 경북 칠곡군에 안착하게 됐다.

그 결과 백선엽 장군과 이승만·트루먼 전 대통령 동상이 세워진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의 방문객은 급격히 증가했다.

`23년 8월 한 달 동안 5만 3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22년 8월 1만 2천여 명과 비교해 4배가 넘고, 한 해 관람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 3만 7천여 명과 비교해도 43%가 넘는 수치다. 9월 6만 5천여 명, 11월 7만 5천여 명 등으로 방문객 수는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호국·안보 교육 장소이자 구국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다부동전적기념관 일대에 다부동 호국메모리얼 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백선엽 장군 기념관, 다부동 전투스포츠센터, 피난 땅굴 등 추모시설에 놀이·체험시설을 추가하여 나라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차별된 호국보훈시설을 만들고, 유학산 일대에는 유해 발굴 지점을 정비하고 야외 체험 공간(방공호·서바이벌 게임장), 호국 둘레길 등산로 등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부의 '낙동강 호국벨트화 사업 확대 계획*'에 발맞춰 칠곡~군위~영천~경주~포항~영덕으로 이어지는 낙동강 방어선 주요 격전지에 각각 설치되어 운영 중인 호국보훈시설을 통합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호국보훈 관련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스토리텔링 등을 통한 '경북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강화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부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로 자유 수호의 상징인 낙동강 방어선 주요 거점마다 상징시설물을 지속 설치하는 호국벨트화 사업 확대 계획 발표

아울러, 경북도는 `22. 1월 청송 항일의병기념공원의 관리·운영권을, `23. 7월에는 경주 통일전의 관리·운영권을 이관받아 경북의 호국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도내 주요 호국보훈시설인 경주 통일전과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 청송 항일의병기념공원 등 도내 호국보훈시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가칭)호국보훈재단을 설립해 국가 현충시설로 승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호국문화 확산을 위해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정전 7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낙동강평화자전거대행진, 각종 보훈기념일 기념식 등 다양한 보훈 행사를 개최했으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등 일상 속 보훈문화 실천에도 앞장섰다.

올해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했으며 광복회 행사용 의복, 장례의전선양단 차량 등을 지원하고, 해외참전유공자 초청 학술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자리하게 된 것은 호국영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섬김의 호국보훈 정책을 추진해 경북을 대한민국 호국의 일번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기도, 지난해 '안전예방 핫라인' 통해 324건 무료 안전점검

지난해 안전예방 핫라인을 통해 324건 무료 안전점검 실시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누리집(sss.gg.go.kr), 카카오톡 채널(경기도민 안전예방 핫라인) 등을 통해 경기도민 누구나 무료 안전점검 신청 가능

경기도가 2023년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운영을 통해 324건의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안전예방 핫라인은 10.29 참사 이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 2022년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도민 안전대책이다. 경기도민 누구나 안전예방 핫라인에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에서 무료로 점검을 한다.

지난해 접수된 안전점검 324건을 분야별로 보면 ▲시설물 274건 ▲생활안전 44건 ▲재난 및 기타 6건이었다. 관리주체가 시군인 118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 점검결과를 안내해 95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조치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주민이 2022년 침수피해 발생지역에 대해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용인시와 도 안전특별점검단이 관로현황을 확인한 결과 용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수원시 효원공원 내 월화원 지붕기와를 드론을 활용해 점검한 결과 다수의 기와에서 파손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낙하물 방지 안전조치 후 지붕기와 보수를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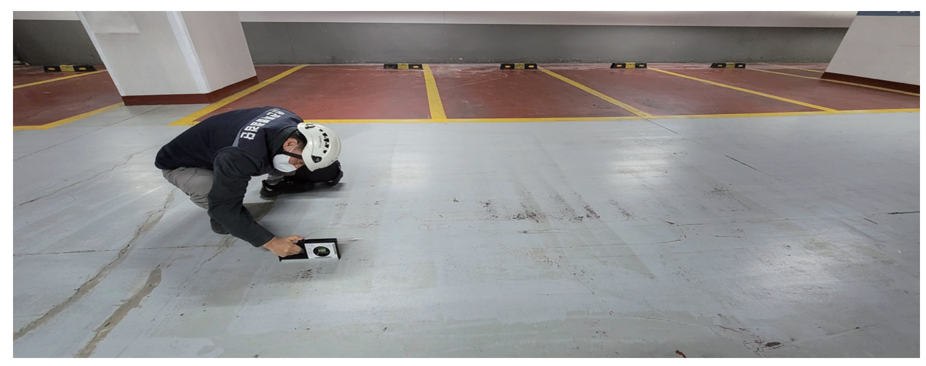
경기도는 안전예방 핫라인에 안전점검용 드론과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등 스마트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3 공공분야 드론 경진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드론 활용 우수사례 우수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첨단장비 확보와 안전점검 고도화 지속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7천만 원을 확보했다. 안전예방 핫라인에 대한 도민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약 85%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생활 주변에서 위험한 시설을 발견하면 안전예방 핫라인으로 안전점검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점검은 안전예방 핫라인 전용전화(010-3990-7722), 안전예방 핫라인 누리집(sss.gg.go.kr), 카카오톡 채널(경기도민 안전예방 핫라인)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김범상/기자



서울시, 명동입구 정류장 교통혼잡 해소 대책 …노선·정차 위치 조정 추진

시, 정류소 혼잡도 완화를 위해 광역버스 노선 및 정차위치 조정 1월 중 조속 시행

서울시가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인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주요 도심지역의 광역 등 시계외 노선 운영에 대한 협의도 적극 추진해 불편 해소에 나선다.

우선 1월 말 노선조정을 감안해 지난달 말 설치한 광역버스 정류소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1.31.(수)까지 유예하고, 수원.용인 등 5개 광역버스 노선 및 정차 위치를 변경한다.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그 밖의 노선과 정차 위치도 1월 중 조정할 예정이다.

또 정류소 운영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와 원활한 차량 흐름을 돕는 계도 요원도 투입키로 했다.

그간 서울시는 강남, 광화문, 명동 등 주요 도심권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계외 노선 직결 운행에 대한 조정 의견 등을 내왔으나, 수도권 시민의 교통편의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및 수도권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해 시계외 노선 신설과 증차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왔다.

그러나 도심권에 광역버스 및 시계외 노선 버스 승객이 지속 증가하면서 버스 열차현상 등이 심화되고, 나아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도 우려되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이에 따라 승하차 안전성에 대한 민원도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류장이 복잡하고 사람은 많은데 차가 너무 밀린다", "명동 입구 버스정류장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다", "푯말이 없어 줄서는 것이 어렵다" 등 시민 의견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에는 총 29개 노선이 정차, 일일 탑승객은 약 9,500명에 이른다. 특히 약 35m의 협소한 정류소공간에 많은 노선과 승객이 밀집, 광역버스가 정차면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정류소 전.후방에 임의로 정차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 상황이었다.

[1월 신속한 노선 및 정치 위치 조정, 줄서기 표지판 유예 등 대책 마련]

이에 따라 서울시는 ▴1월 중 노선 및 정차 위치 조정을 시행하는 한편 지난달 혼잡 개선과 안전을 위해 설치한 ▴'줄서기 표지판'은 노선 분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예하여 운영키로 했다.

첫째,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1월 중 광역버스 노선조정을 완료하고 일부 노선의 정차 위치 조정을 통해 정류소 혼잡 완화에 조속히 나선다. 현재 명동입구 1개 노선에 정차 위치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수원, 용인 등 5개 노선 및 정차 위치 조정을 변경하여 운영한다.

경기도 및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회차지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일일 탑승객 수는 현재 9,500명에서 6,400여명으로 30% 정도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 방면 4개 노선(M5107, 8800, M5121, M5115)과 용인 방면 1개 노선(5007)은 명동입구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광교에 위치한 우리은행 종로지점 인근 신설 정류소에 정차하게 된다.

9401번 버스의 경우 롯데영프라자 시내버스 정류소로 정차 위치를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지난해 12월 27일 설치해 운영 중인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1월5일부터 1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늘 1월 5일 저녁부터 탑승객들은 줄서기 표지판 운영 전과 같은 방식으로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관련 정보도 표출, 안내한다.

서울시는 기존의 정차 및 승하차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광역버스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했으나 서울역~명동입구까지 버스의 열차현상(버스가 꼬리를 물고 늘어서는 상황)이 가중돼 노선 분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줄서기 표지판 운영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금번 표지판 설치 이전부터 정류소 바닥에 운수 회사에서 설치·운영해온 12개 노선은 정차표지판을 유지해 탑승객 혼란을 최소화한다.

또한 운영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현장에서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지원하는 계도 요원도 투입한다. 해당 정류소 대기공간의 혼잡도를 완화하고 차량에 승객을 다 채울 때까지 대기하는 광역버스를 제지하기 위해 모범운전자 등 계도요원을 배치하고, 경찰에 도로의 교통 흐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노선 및 정차위치 조정과 함께 정류소 혼잡 상황이 완화되면, 승객의 사고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다시 '줄서기 표지판'을 운영하는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광역버스로 인한 교통 혼잡은 명동입구 정류소뿐 아니라 신논현역 정류소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 대책 마련을 계기로 대광위에 광역버스 노선 변경 및 정차위치 분산, 감차 등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신도시 확장으로 광역, 시계외 노선의 서울 도심 운행 노선 증가가 이어지는 만큼, 신속한 연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서울 도심 지역 내 버스 운영은 그 과정이 매우 중차대하면서도 복잡하여 해결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단계이나, 교통혼잡해소와 시민 안전 확보까지 조속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에 지속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전남도,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에 8천400억

생산비 절감 집중·재해 능동 대처 등 농가 경영안정 기대

전라남도는 전국 제1의 식량 생산기반(19%)을 바탕으로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 등 핵심 12개 사업에 8천 4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의 식량보호주의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폭염·홍수·가뭄 등 이상기후 발생이 눈에 띄게 늘면서 국제사회는 식량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쌀 적정 생산 및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변화로 잦아진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꾀하고 있다.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 향상과 쌀 적정 생산 분야에 가루쌀과 콩 등 전략작물직불제 682억 원(전국의 37%),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45개소에 52억 원(전국의 36%), 논 타작물 재배 지원 1천875ha에 38억 원 등 3개 사업에 772억 원을 지원한다.

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 분야에 규모화된 들녘별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114개소에 137억 원, 공동 육묘장 설치, 광역방제기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생산비 절감사업에 158억 원을 쓴다.

이와 함께 기계화가 열악한 밭작물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목적 소형 농기계 5천884대 150억 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3천 대 15억 원, 영농안전장비 2만 2천 조 14억 원 등 3개 사업에 179억 원을 투입한다.

농가 기본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망 구축 분야에는 공익직불제 24만 5천ha에 4천907억 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13만 4천 호에 570억 원, 자연재해 등을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14만 9천ha에 1천660억 원, 농업인 안전보험 12만 6천 명에게 153억 원 등 4개 사업에 7천290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0.5ha 미만 소규모 경작농에게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이 기존보다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밀, 콩 등 식량 자급률 제고와 생산비 절감, 농가 경영 안정 등을 중점 지원해 식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일상화·대형화된 농업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농업정책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국민권익위 주관『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경북도의회, 전국 유일 광역의회 1등급 달성

2021년도 종합청렴도 2등급에서 최고등급 경신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4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북도의회는 17개 광역의회 평균(75.9)보다 7.7점 높은 83.6점을 받았으며, 기초의회 75개를 포함한 전체 의회평균(68.5)보다는 무려 15.1점이 높았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의회와 관련 있는 직무 관계자 128명, 단체 및 전문가 68명, 지역주민 300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와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종합적으로 산출됐다.

한편, 경북도의회의 이번 1등급 쾌거는 제12대 도의회가 구성된 이후 배한철 도의장의 강력한 부패방지 의지와 사무처 직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노력의 결과로 알려졌으며,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도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은 경북도의회의 청렴 운영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경북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 참석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1월 4일 울산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는 신년을 맞이하고 첫 정기회로,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대표인 시·도 운영위원장들의 역할과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선입견 없이 들을 수 있는 포용적인 협의회를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건의안",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중부권 거점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증설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각 건의안들은 ①제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비자 확대 및 유인책 강구, ②지방의료원 경영악화 해소를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 정상화, ③늘어나는 공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용활주로 증설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안건들이라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는 민생안정에서 온다는 협의회 회원들의 강한 신념을 볼 수 있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새해 첫 정기회에서 민생과 관련된 안건들을 논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조성을 위해 위원장님들께서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제안한 안건들인 만큼,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들이 중앙정부에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서울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저출생' 서울 출산율 하락세 브레이크 걸겠다"

김 의장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함께하며 제대로, 똑바로 일하겠다" 약속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5일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현재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지금 제일 절박한 문제인 저출생 해결에 전력을 다해 0.5대로 떨어진 서울의 출산율 하락세에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최로 3년 만에 개최된 '2024 서울시 신년인사회'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축사에서 김 의장은 저출생 위기와 관련해 400년 전 '이괄의 난'을 언급하며, "위기의 징조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하면 더 큰 불행으로 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당시 조선 인조 임금은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정권을 잡았지만 이괄의 반란이 준 경고를 실천으로 국정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그 비극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17세기 조선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며, "최태원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이 바깥세상을 몰랐던 조선 지도자들과 달리 세계정세의 흐름에 정통하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은 말만 앞세웠던 조선 지도자들과 달리 실천으로 답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다"고 말하며, 지난 뼈아픈 역사와는 다르게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라며, "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이름의 서울 복구 작업에 매진해 온 서울시의회가 2024년에는 '재도약의 스테이지'를 향해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시대"로, "우리는 위기 때 더욱 빛을 내는 민족으로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지금이 글로벌 리더로 추월할 최적기"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참석자들에게 서울은 리더가 될 역량을 갖춘 도시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세계 130개 주요 도시 금융경쟁력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TOP10 금융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라며, "특히 '미래부상가능성'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앞으로 더 기대되는 도시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올해 서울은 더 비상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항상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시민과 함께하며 제대로, 똑바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광수/기자

화성시의회, 화성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희망찬 새해 포부 밝혀

화성시의회는 1월 5일,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화성시 향남읍)에서 화성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도약을 기원하는'2024년 화성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매년 개최되는 화성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는 주요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짐하는 신년하례의 장이다. 올해 인사회에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 위영란, 김상균, 김영수, 배정수, 송선영, 이계철, 이용운, 장철규 의원이 참석하고 유관기관장과 주요 회원사 등 내·외빈 등 약 200여명이 함께 기업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김경희 의장은 이날 신년사에서"중소기업계가 2024년 사자성어로'운외창천(雲外蒼天)을 선정했다. 운외창천은'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르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뜻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난관을 극복하면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의미다"라며 "오늘의 슬로건인'화성 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기업입니다'처럼 올해도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라고 전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식전 소프라노 공연으로 즐거움을 더했고 시루떡 절단식과 건배제의로 진행됐다.

오늘 행사를 주관한 화성상공회의소는 화성시 관내 기업을 대변하며 애로사항 해소에 힘쓰고 유관기관과 기업인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양시현/기자

The Way to Better Living
길이 열리는 화성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공건물 지하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 개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주최로 고병용 위원장은 지난 3일 성남시 공공건물 지하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진행된 토론회의 주요 발제로는 공주대학교 오형석 건축학과 교수로 △지하공간의 정의 △지하공간 정책 △국내외 현황 △공공건축의 지하공간 활용에 관해 주제 발표 후 토론자 성남시정연구원 정수진 부장, 서울연구원 이주일 선임연구위원의 토론 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했다.

고병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성남시의 공공건물 신축 시 건축설계에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성남시의 미래 도시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며, 협력하여 성남시의 지하공간을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형석 교수(공주대학교)는 지하공간 활용과 국내·외 사례에 대해서 설명했고 "요즘 아파트 공간도 지상에다가 정원 꾸며놓고 지하를 많이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민 편의시설을 넣어 적극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민간은 이정도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하공간을 이용하는데 30년 이상으로 사용 할 생각을 한다면 공공도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수진 부장(성남시정연구원)은 "기후변화 등 문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 공간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으며, 비용으로 인해 드는 심사들로 인해 움츠려드는 부분들은 조례나 인센티브를 만들어 공공 부문에서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된다."라고 했다.

이주일 선임연구위원(서울연구원)은 "세계적으로 지하 공간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일부 대도시를 빼놓고는 제약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용적률이 포함되지 않는 지하 공간을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 시민들에게 어떻게 돌려줄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병용 위원장은 "미래의 후대들이 쓸 땅으로 생각하여 공공건물 설계를 할 때 지하 기반을 튼튼하게 해서 지상층을 한 층 내리더라도 지하층을 더 확보하여 주차장 뿐만아니라 공용 공간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문경시여성단체협의회, 2024년 신년교례회 개최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는 1월 5일 11시, 문경관광호텔에서 신현국 문경시장, 임이자 국회의원, 황재용 시의회의장,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수석부의장, 시도의원, 관내 여성계 인사, 18개 여성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단체 사업성과 보고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3년 각 여성단체에서 추진한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며, 새로운 기운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문경 여성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여성단체 사업성과 보고, 새해 인사, 축사, 신년 축하 퍼포먼스 및 시루떡 절단 등으로 진행됐으며, 부대 행사로 각 여성단체 회원들의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도 이뤄졌다.

박영신 여협회장은 새해 인사를 통해 "지난해 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2024년에도 지역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해질 때까지 열심히 뛰겠다."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 증진은 물론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문경 여성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 주관 단체인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총 18개 단체로 7천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지역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 오고 있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광고국:1899.96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 출입구 문제 면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김정중 안양시의원, GH경기주택도시공사 류정호 도시공간정비사업처장 등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으로 출입구 문제에 대한 민원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유영일위원장은 근명중학교 통학로와 매우 인접한 냉천지구 출입구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쾌적한 도시환경 및 학생들의 통학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를 했다.

GH경기도시주택관계자는 '다각도로 상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최선을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잘 반영이 되도록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당감면…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임대수익 등 홍보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 분양하고도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아
222명에게 받은 분양대금이 600억여 원에 달하며 분양 수개월 만에 사실상 완판
설립업체(분양사)가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을 대행하거나
실제 입주한 것처럼 보이도록 사무기기 임대업체까지 알선한 정황을 확인

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으며 대출 한도가 높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분양계약을 유도했다.

이 업체는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을 분양하고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222명에게 받은 분양 대금은 600억여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70세 A씨는 거리 홍보를 하던 직원의 안내로 분양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노후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현장에서 계약금을 입금했다. 전업주부인 B씨는 회사보유분 선착순이라고 분양직원이 끈질기게 연락해 여동생과 함께 지식산업센터 8개 호실을 계약했다. 분양홍보관에서 일하던 분양직원 역시 분양대행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일반 사무직으로 알고 지원한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업체는 이들에게까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해 24개 호실이 17명의 분양직원에게 분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업체는 사업자등록을 대행해 주거나 상호와 업종을 지정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했고, 입주 시점에는 자신들이 선정한 인테리어회사를 통해 사무기기를 설치하고 임대해 실제 입주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현재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이 공실이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매달 관리비와 대출이자 부담으로 신음하는 반면 설립업체는 수익금을 배분하고 이미 청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업체가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해 청산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추징할 예정이다. 법인이 청산하고 없어지면 청산인과 청산금을 배분받은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징수를 할 수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세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얻은 결과로, 앞으로도 탈세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서정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똑버스(DRT) 운영 확대위한 방안 모색

경기도 똑버스(DRT), 교통취약지역 이동 불편 최소화·편의성 향상 기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3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똑버스(DRT수요응답형 대중교통)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안산시의회 김유숙, 이대구, 이혜경 의원, 경기도청 한승민 첨단교통팀장, 안산시청 김정아 대중교통과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안산시 의회 의원들과 안산시청 관계자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똑버스 사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언급하며,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7월부터 운행 계획이었던 똑버스(DRT)의 조기 운행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청 한승민 첨단교통팀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행 방안을 모색해서 조기 운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정현 의원은 "공단 내 경기도 똑버스(DRT)가 조기 도입된다면 지역 내 교통취약 시민들의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안산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똑버스(DRT)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중심으로 이동 수요를 고려해 운영되는 차량으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를 지정하여 유동적으로 운영하며 이동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통서비스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업무 수행 적합도에 따라 지원 가능 장애등급 명시 필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공공기관들의 채용공고 시 업무 수행 적합도에 따른 장애등급별 지원 가능 여부를 명시해야 채용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박탈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파주상담소에서 진행된 파주시 장애인복지팀장과 민원인과의 면담에서 민원인은 "장애가 있지만 장애인 일자리 외 일반 채용의 경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는데, 매번 '일을 할 수 있겠냐'는 반문을 듣게 된다."라며, "채용공고에는 장애인 우대라는 문구가 있지만 결과는 매번 그렇지 않아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파주시 장애인복지팀장은 파주시의 경우 지난해 142명의 장애인을 고용했고, 매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고용 주체가 시가 아닌 개별 채용 내용을 모두 검수하고 제재할 수는 없지만, 지원 및 채용 과정에서 차별이나 불합리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찰하고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채용에 있어 공정하고 편견 없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야 하는데, 오히려 고용 지침과 채용 수치 채우기에 급급한 행정을 하고 있어, 사회형평적이고 열린 채용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장애등급별 채용 비율을 살펴보면 정말 편견과 차별 없는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채용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도 복지의 일환이기 때문에 장애 등급별 세부 지원 가능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일자리에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 있는 도전이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고의원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촉법소년·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촉법소년 · 위기청소년 수요맞춤형 특화교육으로 재사회화 실효성 높여야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회장을 맡고 있는 '촉법소년 ·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연구회'가 3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촉법소년 · 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촉법소년 · 위기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도정에 반영하고자 시행됐으며, 지난 10월에 착수하여 12월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유경현 의원과 연구책임자인 중부대학교 김신 교수, 사회적기업 ㈜라온스 최은영 대표이사 등 연구진,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중부대학교 김신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촉법소년 · 위기청소년 105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답변자의 약 88%가 재사회화를 위한 특화교육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영화, 음악, 뷰티, 웹툰 등 문화 · 예술 분야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드론 분야를 포함, 5개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과제로 촉법소년 ·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화교육 연계, 사후관리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교육허브센터'의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유경현 의원은 "촉법소년 · 위기청소년들은 비록 한 번 넘어졌지만,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교육을 통해 건전한 도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면서,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촉법소년 ·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효과적인 특화교육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상자들이 본 교육을 받기 전 관심사를 탐색하는 라운딩 프로그램의 신설을 제안했으며, 정책 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 촉법소년 · 위기청소년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촉법소년·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경기도 내 촉법소년·위기청소년들의 재범률을 낮추고 진로개척을 지원하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제시하기 위해 유경현 의원 주도로 설립된 의원 연구단체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도의원, 태영건설 워크아웃...도봉산-옥정, 옥정-포천 철도 사업 대책 논의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3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건설과와 ㈜태영건설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영주 의원은 "태영건설이 지난 12월 28일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했다"면서 태영건설이 수행하고 있는 도 내 철도건설 사업의 차질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들은 철도건설에 대한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곳이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영향으로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수령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도 내 태영건설이 수행하고 있는 철도건설사업은 별내선 4공구(사업기간 2015.10.~2024.6., 현재 공정율 95%), 도봉산-옥정 3공구(사업기간 2020.12., 현재 공정율 18%), 옥정-포천(사업기간 2023.8.~2029.12., 실시설계 중)으로 총 3곳이다.

이에, 철도건설과는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미수령 우려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무비, 자재비 등 기성대금 직접 청구시 도에서 직접 지급하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하도급 업체 동요 및 공사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태영건설에 중요사업장으로 본사 차원에서 최우선 현장으로 관리를 당부하고, 설계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해 공정보고 및 검수 과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 간 합의한 때에는 하도급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도급업체에 직접지급할 수 있다.

김범상/기자

여주시, 보전산지 해제·용도 불부합지 용도지역 변경 등 공약사항 이행 등 추진 박차

여주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완화와 농림지역.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 불부합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지난 2023년 7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 사항을 보면 여주시 행정구역 면적 607,701,872㎡ 중 4,701,307㎡(524개소 블록)를 입안했으며,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3,001,207㎡(349개소 블록)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용도지역 변경 재공람 이후 2024년 1월 중 경기도에서 최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 관련 사례로는 강천면 부평리 253-1번지 일원 공장을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간매리 502-37번지 일원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공장의 추가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관내 공장의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행복도시 희망여주' 구현을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I-1.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완화)이 적극적으로 이행되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여주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2024년 화성시 평생교육 강의안 제안 공모 실시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2024년 화성시 평생교육 강의안 제안 공모

화성시가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2024년 화성시 평생교육 강의안 제안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평생교육 분야의 우수하고 참신한 강의안을 발굴해 시민에 제공함으로써 100만 화성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과 강사, 평생교육이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성인진로개발 역량 향상 교육으로 총 30개 과정이며, 해당 분야 전문강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진행하며, 최종 선발된 강의안은 2024년 화성시민대학 및 화성시평생학습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될 예정이다.

제안 희망자는 화성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이메일 또는 방문, 우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용선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강의안 제안 공모를 통해 2024년 화성시 평생교육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재능 있는 우수한 강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화성시 Hwaseong

수원시, 1인 가구 맞춤형 온라인 포털 '쏘옥' 개설

1인 가구 사업 정보 통합 제공, 1인 가구 소통 공간 마련

수원시의 1인가구 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인 가구 맞춤형 온라인포털 '쏘옥(SsOcC)'이 개설됐다.

8일 문을 연 쏘옥은 수원시 부서와 관계 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1인 가구 사업의 정보를 제공한다. 1인 가구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공간' 게시판, 1인 가구 관계기관을 안내하는 '기관안내' 게시판도 있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쏘옥(수원시 1인가구 포털)'을 검색해 쏘옥에 접속할 수 있다. 쏘옥은 'Suwon Safe(안심) One Convenience(편의) Connect(연결)'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다.

지난해 3월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한 수원시는 1인 가구 관계기관 간담회, 1인 가구 정책 설문조사, 1인 가구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1인 가구 지원사업·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1인 가구를 초청해 1인가구 정책 쇼케이스를 열기도 했다.

수원시는 '수원에서 혼자, 수원에서 같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1인가구 종합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결', '안심', '편의' 등 3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온라인 맞춤형 플랫폼 개설 ▲쏘옥패밀리 구성·운영 ▲찾아가는 1인가구 스테이션 ▲1인 가구 마을 네트워크 확대 ▲생활 안심망 제공 ▲주거 안심 확대 ▲돌봄체계 확대 ▲1인 가구 생활 프로그램 등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맞춤형 온라인 포털 쏘옥에서 1인 가구가 편리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1인 가구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총조사 자료(2022년 11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수원시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4.4%에 이른다.

김범상/기자

성남시, 어르신·아동 대상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본격 추진

지역 제한 없는 전국 경쟁입찰로 공정 ·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 후 본계약 체결

성남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과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연말, 지역 제한 없는 전국 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정보기술 컨소시엄'과 상호 기술 협상을 완료한 데 이어 본 계약을 체결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국비 101억 원을 포함하여 총 126억 원 규모로 2025년까지 추진된다.

이 사업은 ICT 기반의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해 지역사회의 디지털 전환, 삶의 질 향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이다.

앞서 성남시는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인 '로봇을 활용한 주민 생활시설 돌봄 및 교육 서비스 확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민선 8기 성남시정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투명의 원칙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절차에 따라 외부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평가 당일 입찰 참가업체가 직접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또한 사업공고 시에는 사전규격 공개 및 의견수렴을 거쳤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특정 독소규격 요소를 발견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내용을 수정해 재공고했다.

성남시는 앞으로 관내 복지회관·아동돌봄센터·도서관·보건소 등 주민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거친 후 ▲화상시스템 활용 어르신 여가·복지 서비스 ▲스마트기기 활용 치매 예방 인지훈련 서비스 ▲자율주행 기반 방역관리 서비스 ▲로봇 활용 아동 교육 서비스 ▲스마트빌리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생활시설 관계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ICT 기술 기반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고양시,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자녀 1명에 한해서 연 1회 100만원 한도...최대 4년간 지원

고양특례시는 이번 달 31일까지 약 1개월 동안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3회 차를 맞는 이 사업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중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대 4년간 동일 가구에 지원하나 자녀 1인에 한정된다. 또한 기존에 해당 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는 매년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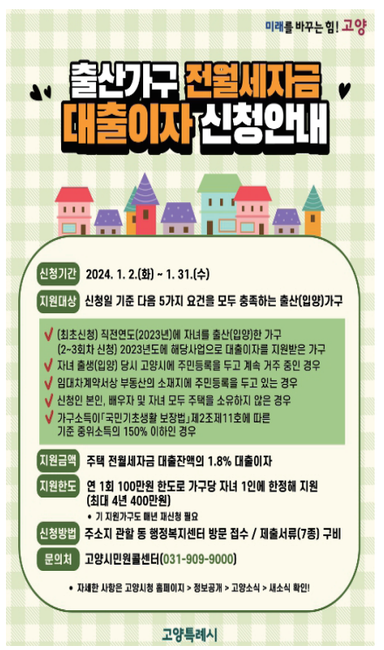
올해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입양) 가구로 ▲(최초 신청)직전년도(2023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 또는 (2~3회차 신청)2023년도에 해당 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가구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다만, 유사한 목적으로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등 7종의 제출 서류가 필요하니 공고문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면 편리하다.

한영기/기자

고양시



안양시,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105세대 모집…16일 모집공고

최대호 안양시장 "새해에도 청년들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

안양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덕현지구(평촌센텀퍼스트)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이달 16일에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특별도시'를 표방하며 주거, 취업 및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덕현지구 내 청년임대주택 105세대(전용면적 36㎡ 90세대, 46㎡ 15세대)를 모집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안양시 또는 안양도시공사 청약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청년임대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청년에게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대학생·청년의 경우 본인만 무주택자면 가능)이며, 월평균소득이나 세대총자산,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공급 대상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본 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3~4개월의 자격 검증 기간을 거쳐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면, 올해 6월경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덕현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32년까지 청년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새해에도 안양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안양시

이천시 '2024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육생들의 높은 참여율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천시는 2024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지난 3일 백사면을 시작으로 오는 1월 18일까지 진행하는 가운데, 현재 교육 시작 이틀째로 계획 대비 높은 참석률을 보이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 순회 영농기술교육 11회, 전문교육 5회(로컬푸드생산자, 복숭아, 사과·배, 양봉, 시설·원예토양관리) 과정 운영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며 총 16개 과정에 1,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영농기술교육 강의는 농업기술센터 내 읍면 상담소장 및 직원들을 주축으로 한 자체 강사들로 구성되어 이천쌀 재배기술, 농기계 안전교육, 기타 작목 교육으로 각 읍면 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3개 권역별(북부, 중부, 남부)로 차별을 두어 구성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새해 인사 말씀에서 "극심한 이상기상과 기후변화로 농업현실은 더욱 어려워지리라 예상되지만, 농업과 농정에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살기 좋은 농촌, 미래 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보다 더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1969년 겨울농민교육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1년 농사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자리로서 2010년 이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마다 연초에 추진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광주시, 경안시장 2024년 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 선정 10억원 확보

광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인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경안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으로 선정돼 2년간 국비 포함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은 시장이 보유한 자원과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해 지역 특색이 가미된 쇼핑과 문화 체험이 가능한 테마형 관광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경안시장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에 걸쳐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공유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 디자인 환경 개선 사업 및 스마트 혁신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특성화 시장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이홍재 경안시장 상인회장은 "경안시장이 지난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관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까지 선정되면서 시장 자생력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지자체와 경안시장 상인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경안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새내기 시선으로 시민만족 행정 서비스 해주길"

5일 시청사 2층에 개점한 카페·매점서 신규 공직자 7명과 티타임

"의욕 넘치는 새내기로서, 용인의 청년으로서 바라본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해 시민들이 피부로 만족할 만한 행정 서비스를 해주기 바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5일 시청사 2층에 새로 들어선 카페에서 지난해 7월 이후 임용된 신규 공직자 7명과의 차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청사 내 새롭게 마련된 공간에서 새내기 공직자들과 격의없이 소통하면서 업무에 어려운 점이 없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 한해 활약을 응원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김동건 주무관(시설9급)은 "시장님은 언론사에서 오랜 기간 기자 생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내기 시절 어떤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아시다시피 중앙일보 기자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며 "당시 사회부에 소속돼 경찰과 병원 등 출입처를 돌며 밤샘 취재를 하느라 정말 힘들었다. 갑작스럽게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선거철엔 일정이 빠듯해 고생스러웠지만 기자로서의 직업 소명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이어 "1997년 선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기사로 특종상까지 받으며 대한민국 역사에 큰 기록을 남겼던 일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다"며 "특종에 대한 경쟁과 현장 취재, 기사 작성 등 업무 스트레스가 컸지만 다행히 제적성에 잘 맞았고 즐거움도 컸다. 다시 태어나도 기자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자 시절 취재 과정에서 두려움 없이 질문을 던졌다"며 "여러분도 업무를 할 때 두려움 대신 도전의식을 갖고 시민의 입장에서 대중교통이나 먹거리 등 현장감 넘치는 아이디어를 던져주기 바란다. 여러분의 시대는 여러분의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임지영 주무관(행정9급)의 "시장님 평소 취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시장은 "책 읽고 그림 보고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며 "시장 취임 후 30여 차례 특강도 진행할 정도로 그림과 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학창시절 음악 수업에서 배운 가곡이라며 그 자리에서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제5곡 '보리수'를 독일어로 부르자 직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시는 청사를 방문한 시민과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마련하자는 이 시장의 주문에 따라 지난해 말 카페(99.7㎡)와 매점(89.33㎡)을 마련했다.

지난 2022년 6월 계약 만료로 매점이 문을 닫은 뒤에 청사 내에 사무용품이나 다과 등을 사거나 간단한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어 직원은 물론 시민들도 불편했다.

이 시장은 카페와 매점 조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탁 트인 공간에서 시민과 직원들이 창밖을 바라보며 담소를 나누도록 카페 벽체를 유리로 설치하고 카페와 매점을 연결하는 복도에도 테이블과 의자를 놓도록 했다.

새 카페를 찾은 시민과 직원들은 잠시나마 여유를 즐길 수 있다며 큰 만족을 나타냈다.

차담회에 참가한 직원들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가 많고 가격도 저렴해 자주 이용한다.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나면 업무에 활력이 생겨 도움이 된다. 시장님이 카페를 마련하는 데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광명시,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인권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인권지킴이 위촉

어르신들은 물론 시설의 인권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 유도하는 조력자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광명시는 지난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인권보호와 학대 예방 활동을 위해 인권지킴이 11명을 위촉하고 관련 시설장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인권지킴이는 요양원을 매월 1회 방문해 시설장, 종사자, 입소어르신의 인권 모니터링, 입소자 면담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와 학대 방지는 물론 시설의 인권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조력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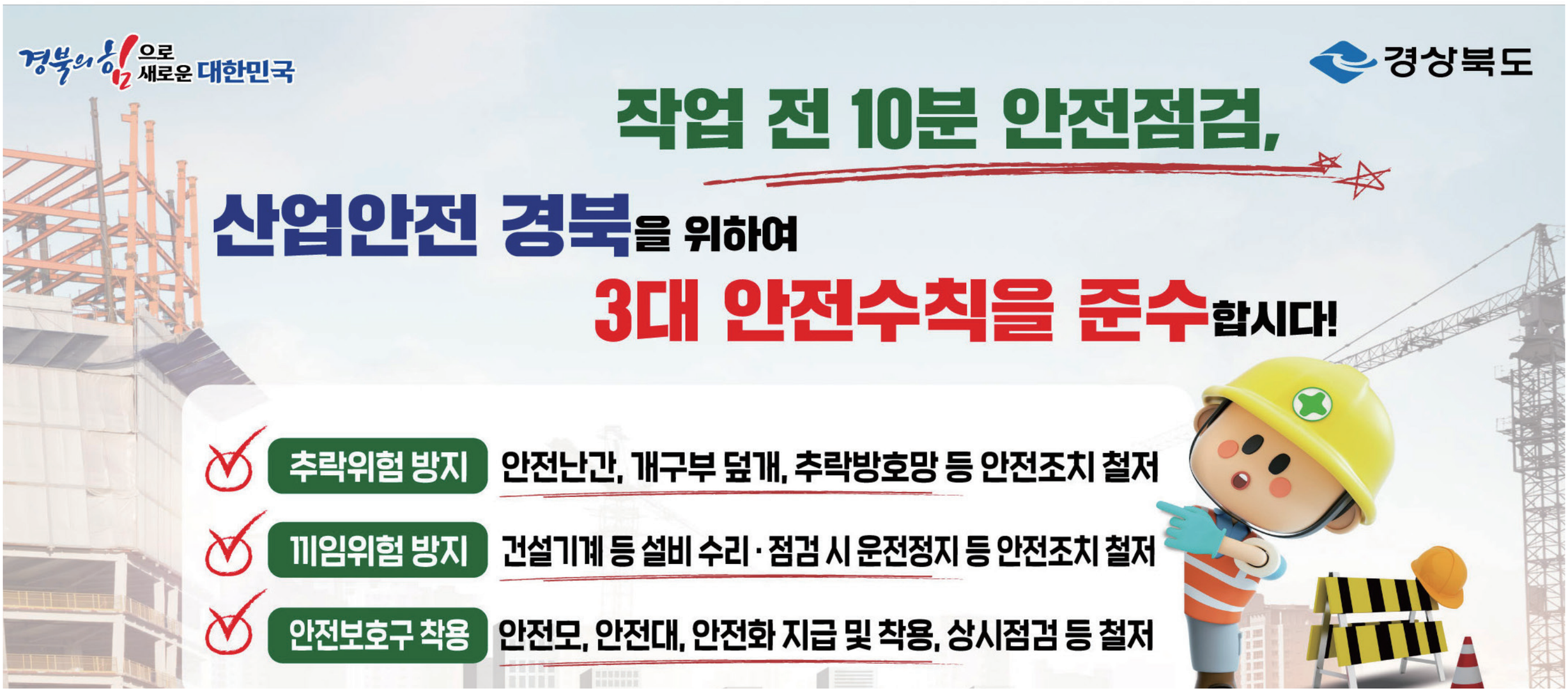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인권지킴이 희망자를 모집하고 10월에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의 노인인권과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노인학대 예방 등을 다룬 사전교육, 11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이버 인권교육 등을 진행하고 이날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시립노인요양센터장은 "인권지킴이 지정시설로서 우리 센터를 대표해 인권지킴이를 환영한다"며 "입소 어르신의 인권 개선과 보호자들에게 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인권지킴이 활동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전체 14개소 중 희망 시설 7개소 위주로 인권지킴이 활동을 우선 시행한 후 전 시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활동이 인권 취약계층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에서도 시설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이 인권침해 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동일/기자



전남도, 장성 데이터센터 구축 속도 낸다

관련기관 협업 '업무추진단' 출범…스타트업 지원 등 역할

전라남도는 장성 데이터센터(장성군 남면) 구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장성 데이터센터 업무추진단이 출범,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관은 전남도와 장성군을 포함해 광주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전남테크노파크, 파인디씨피에프브이(주) 등이다.

장성 데이터센터는 4천900억 원을 투자해 40MW급 데이터센터 1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월 투자협약 이후 특수목적법인(파인디씨피에프브이(주)) 설립을 마무리하고 9월 착공을 목표로 설계·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업무추진단은 지난 4일 출범했다.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을 단장으로 건설분과, 지원분과, 협력사업분과로 구성됐다. 기업 애로사항 수렴, 추진 상황 점검, 데이터센터를 이용할 수요기업 발굴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인 데이터센터 착공에 필요한 기관별 업무협력을 포함해 전남지역 창업 초기(스타트업) 기업지원 및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역할도 할 계획이다.

건설분과는 데이터센터의 설계 및 시공, 금융에 관한 사항을, 지원분과는 전남도와 장성군을 중심으로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건축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협력사업분과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아토리서치 등이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도내 기업 지원, 디지털 전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조재웅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이번 업무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장성 데이터센터가 거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 폭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맞춰 적기에 건립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남이 첨단 데이터센터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하도록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순천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총력 다할 것

출산 양육 지원 강화

순천시는 '2024년은 임신부터 영유아의 양육, 초등돌봄까지 다각적인 지원 정책 확대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나아가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임신·출산·보육·아동 돌봄 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14.5%를 증액한 1,500억 원을 편성한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 강화, 믿고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야간 · 휴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추진한다.

출산 · 양육 지원 강화

먼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난임 부부가 경제적 부담으로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2024년부터 난자 냉동(1회, 최대 200만원)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총 2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를 정부 지원과 동일 한 11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저출생 극복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출산 및 양육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가 0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둘째아 이상 출생아 가정은 300만원으로 상향된 첫만남이용권과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도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학부모가 부담하던 특성화비도 10만원 지급된다.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도 1월부터 기존 5실에서 10실로 확대 운영한다.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올해 시는 맞벌이 등 주말·공휴일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365 열린 어린이집을 1개소 운영한다.

특히, 민선8기 주요 공약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정부기준 이하로 조정한 순천형 0세 안심반 지원사업을 올해도 2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장애아통합반과 1세반까지 확대 운영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하고, 재원 아동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 어린이집의 운영에도 적극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도 높인다.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친화 도시 조성

순천시는 2018년에 최초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후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다.

올해도 230개의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 함께 돌봄센터를 2개소 추가 확충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초등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전남 최초 도입된 아동급식카드의 가맹점을 확대하기 위해 착한식당 발굴 등 아동의 급식 선택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과 예비부모 및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과 '아동존중 인식 개선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갈 계획이다.

야간 · 휴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전남 제1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현대여성아동병원과 미즈여성아동병원이 야간과 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시작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당번제로 진료하는 연합방식으로 운영하며. 진료 시간은 현대여성아동병원 화·수·목·금요일 오후 6시~11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7시까지이며, 미즈여성아동병원 월요일 오후 6시~11시, 토·일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멸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해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나주시, 지난해 '수의계약 낙찰률' 상향 효과 커 … 18억원 시중 풀렸다

지난해 4월부터 낙찰률 3% 일괄 상향, 관내 업체 수의계약 비율도 높여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난해 수의나주계약 낙찰률 상향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수의계약 낙찰률을 3% 상향한 결과 공사·물품·용역 등 18억원 규모 예산이 시중에 풀려 지역 경제 선순환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공사, 용역, 물품별 서로 다른 낙찰률을 통일하고 3% 일괄 상향했으며 지난 연말까지 공사는 6억3천만원, 용역 4억3천만원, 물품 7억2천만원 등 총 18억원 규모 낙찰차액이 발생했다.

낙찰률 상향과 더불어 직전년도 대비 관내 업체 수의계약 체결 비율도 높여 불경기 가운데 지역업체 경영 활성화를 도왔다.

특히 물품 구입의 경우 2022년 대비 약 4.3% 증가한 13여억원을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상공인 경영 여건에 실질적인 보탬이 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낙찰률 일괄 상향과 우리 지역업체 수의계약 비율 상승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 기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침체, 고물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보성군, 관내 문화·예술 단체 대상으로 공모사업 진행

시각·공연·문학·종교문화 등 4개 분야 1억 5,650만 원 지원

보성군은 오는 22일까지 지역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 문화 예술 보존 및 육성 프로그램(시각·공연·문학), 종교문화행사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하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보탬e)'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단체의 사업수행 실적과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 지원할 예정이며, 4개 사업 총예산액은 1억 5,650만 원이다. 지난해는 총 27개 보조사업자가 최종 선정됐다.

지원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보성군에 소재지를 둔 행사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단체다. 보조사업자 선정은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2월 초 최종 선정된다.

지난해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신청 후 결정된 보조사업비의 10%는 자부담으로 의무 부담해야 하고,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활동사진과 함께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 관련 문의는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와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보탬e)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영/기자

함평군가족센터, 영유아기 부모 역할지원 교육 실시

함평군가족센터은 2월부터 12월까지 14회기에 걸쳐 총 284명 참여, 영유아기 부모 역할지원 교육 '함평의 미래를 키우는 부모교실, 부모와 함께 하는 놀이 체육'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영유아기 부모·자녀와의 애착 관계 향상 및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가족서비스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적 한계와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욕구를 반영하여 부모교육 환경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결과이다.

상반기에는 영유아의 건전한 스마트 미디어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8개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부모교육으로 확대 운영했고 하반기에는 부모와 함께하는 영유아기 자녀 놀이 체육을 추진하여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가족센터는 다양한 전문교육과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행복한 아이, 성장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예정이다. 더불어 영유아기 부모 역할지원 교육을 통해 가족관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모 역량 강화 및 긍정적 양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진/기자

강진군 '푸소', 행안부 생활인구 증대사업 대표 사례 선정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1일 발표한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서 강진군의 '푸소(fuso)'가 생활인구 증대 사업 관련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며, 지방소멸대응의 새로운 해법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생활인구를 산정한 행안부의 발표는 이번이 최초로,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인구에 대한 개념과 접근방법이 달라지고 있음을 정부 차원에서 공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에 체류 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더한 개념으로, 행안부는 이번 조사에 주민등록정보와 외국인 등록 국내거소신고 정보, 통신 3사의 이동통신정보를 가명으로 결합한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산정한 7개의 시범 도시(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강원 철원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전북 고창군, 경남 거창군)는 모두 주민등록상 등록 인구보다 체류 인구수가 월등히 많아, 앞으로 인구 산정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표에서 강진 푸소는 지자체 생활 인구 증대 사업 사례 가운데 '숙박체험' 분야에서 농촌 민박과 농촌체험으로 힐링하는 생활 관광 프로그램으로 소개됐다.

타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며 체류형 농촌관광프로그램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강진 '푸소(FUSO)'는 Feeling-Up, Stress-Off의 줄임말로, 감성은 높이고 스트레스는 해소한다는 뜻으로 전라도 사투리 '덜어내다'나 '내려놓다'등의 중의적인 의미로도 통용된다.

강진군은 2015년 5월부터 학생푸소를 시작으로, 일반인 푸소,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푸소, 공무원 푸소 청렴 교육 등 푸소의 주체와 테마를 바꿔 다양한 모습으로 지난 8년간 거듭 발전시켜 왔으며, 그동안 57,645명이 다녀가고 52억 8,245만 원의 농가소득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푸소의 다각적인 변화를 통해, 생활인구유입은 물론,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매력 있는 상품으로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군은 지난해 3월, 강진군 생활인구 다수 유입을 위한 '강진군 사이버 명예군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주민등록지 기준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강진군민 확보'를 위한 시작을 공표하기도 했다.

군은 조례에서 푸소, 고향사랑기부, 농특산물 구매 등을 통해 강진과 인연이 닿은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특산물 직거래 알선, 문화관광시설 관람료 할인, 공연, 행사 초청 등으로 긴밀한 연대를 구축해 궁극적으로 생활 인구를 늘려간다는 전략을 보여준 바 있다.

특히, 강진군은 2024년 시무식에서 '반값 강진 관광'을 통한 관광객 유입과 관련한 비전 선포식을 갖고, 가족 단위 도시 관광객들을 집중 공략할 것을 천명했다.

'반값 강진 관광'이 지난해 48만 명의 관광객을 견인한 축제와 함께 쌍끌이로 체류객을 증가시킬 경우, 강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며, 생활인구 증가는 덤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원 군수는 "더 이상 주민등록 기준지만으로 인구를 산정하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강진군은 올해 '반값 강진 관광'을 통해 1박 이상의 체류를 극대화해 생활 인구를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윤호/기자

힘차게 도약하는 남원, 스마트농업 선두 전략

남원시는 스마트농업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 조성,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표준화 등 남원시 스마트농업 전략 마련을 위해 남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거점단지 조성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8일 개최했다

이번 용역 보고회는 지난 2023년 5월 10일 용역 착수하여, 그동안 시설하우스 및 스마트팜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고, 스마트시설 수준 조사 진행 및 관련부서 실무회의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10월 20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남원시 스마트농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용역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3.7.26.)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스마트농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 남원시 미래농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기반 구축방안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다.

남원시 관계자는"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및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등 에코(Eco)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을 통하여 젊은 청년농 육성으로 남원시만의 스마트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특별자치도로 다시 태어난 전북! 이차전지에 이어 방산, 바이오, 스마트팩토리에'올인'

김관영 지사, 이차전지 통한 사상 최대 기업 유치 실적, 방산과 바이오 스마트팩토리로 이어갈 것

특별자치도로 다시 태어난 전북이 지난해 이차전지에 이어 올해에는 방산과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등 신미래 산업 분야에 올인한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이차전지 기업 유치 실적을 올린 도는 스마트팩토리로 올해 첫 포문을 열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4일 올해 첫 현장시찰지로 익산의 스마트형 공장인 나리찬(김치제조)를 방문, 각계 업체 대표, 도의원 등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스마트팩토리는 김 지사가 야심차게 준비해 지난해 첫 삽을 뜬 사업이다. 요지는 3년간 대기업 출신 혁신멘트 30여명을 채용, 도내 중소기업체 300여곳의 코디네이터로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나리찬은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수혜를 받아 2021년과 2023년 매출이 기존 37억에서 12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각각의 김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이 하기 힘든 배추·무 등 각종 채소 박스를 로봇이 들어올려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으면 배추와 무 등이 레인을 따라 가면서 완성품으로 나오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가공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 친환경 사업장으로 바뀐 이 회사에는'매출 급성장'이라는 대박을 안겨줬다.

도는 이 여세를 몰아 올해 방산과 바이오 기업 유치의 스피드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이달 안에 방산 관련 국가기관과의 연구·실증 기반 조성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관계된 앵커기업(중핵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바이오산업 분야 역시 김지사가 올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영역 중 하나다.

때문에 오는 8일부터 미국 CES 관람을 위해 미국에 가는 김 지사는 내친김에 보스톤을 방문, MIT대학 메카노 바이올러지 랩실을 방문하고,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생명공학 업체인 모더나 본사도 둘러보며 바이오 산업 양상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도지사가 직접 올초 시무식에서 방산과 함께 바이오 기업 유치에 성과를 내겠다고 한 만큼, 올해는 이들 분야가 도정에서 총력전을 펴는 전략산업 군으로 떠오를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남출/기자

해남군"모든 길은 땅끝해남으로 통한다"사통팔달 SOC사업 착착

고속도로, 철도 교통망 구축 속도, 고속철도 노선 제5차 철도망 반영도 추진

해남군은 지역장기성장의 기반이 될 SOC사업 추진에 군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2일 신년사를 통해 광주~해남~완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2025년 보성~해남~임성간 철도 개통, 2027년 국도77호선 연결도로 개통 등 교통망의 차질없는 확충에 이어 국가 고속철도망 해남 노선 반영을 해남군 장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따라 해남군은 지난해 11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건설사업 촉진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고속철도 노선 개설 논의에 본격 나서고 있다.

올해는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시작되는 시기로, 군은 해남군과 완도군 노선을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여건 개선 시 제주노선 2단계를 추진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군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무안공항~목포) 및 보성~임성리간 철도와 연계하는 다양한 노선들을 검토해 여론수렴과 사업성을 조사한 후 전라남도와 함께 타당성 제고방안, 정부설득 논리 개발 후 제5차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고속철도의 연결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지역 발전의 파급효과를 가져와 땅끝해남이 대한민국의 중심,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이라는 위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올해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이 시작되는 만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해남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해남군을 사통팔달 연결하는 SOC기반 구축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해남 최초의 철도인 보성~임성리간 82.5km를 연결하는 남해안 철도는 노반시설공사가 98% 완료됐으며, 역사신축과 전력, 신호, 통신 등 전철화 사업을 막바지 추진 중이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은 지난해 10월 말 예타기관인 KDI에서 주관으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경제성 · 정책성 분석이 완료되어 사업타당성이 통과되면 공사에 착공하여 2034년 완공 예정이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은 강진 작천에서 해남 남창까지 38.9km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조 5,965억원이 소요된다.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광주까지 40분대로 단축되어 물류 및 교통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 77호선 마지막 연결 구간인 화원~신안 압해를 잇는 해저터널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공정율 14.37%를 나타내고 있다. 해저터널 2.73km 중 340m 구간을 굴착 완료한 상태로 서해안고속도로와 무안국제공항고속철도를 연계한 관광활성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관내 지방도 806호선인 마산~산이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사업비 1,439억원을 투입, 16.7km를 시설하는 공사로, 설계가 완료되어 2024년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조기 착공시 화원 일반산업단지 해상풍력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물류량 증가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며 오시아노 관광단지,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명현관 군수는"도로망 구축을 위한 SOC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면서 군민들의 교통환경 개선은 물론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며"고속철 해남노선 반영 등 핵심사업들도 군민들의 의지를 모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갑문/기자

진도군, 2024년 공모사업 대응 추진 계획 보고회 개최

총 54건, 사업비 1,761억원 규모 공모사업 신청 계획

진도군이 8일 간부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대응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대응계획보고회는 2023년도에 선정된 공모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2024년도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도비 확보를 통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된 공모사업은 총 54건에 사업비는 1,761억원이다

대표적인 공모사업으로는 ▲해양수산부 2024어촌신활력증진사업(7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사업(200억원) ▲전라남도 전남형 민원주택 건립사업(150억원) ▲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1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90억원)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40억원) 등으로 군은 총 54개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해 공모사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300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200억원) ▲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158억원) ▲세방낙조 예술(아트)문화 관광명소 조성(145억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100억) 등 총 70건에 사업비 1,358억원이라는 '역대최다'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지난 5년 평균 441억원의 3.1배에 달하는 실적이다.

김희수 군수는 "진도군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위해 꼭 필요한 공모사업을 전남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알려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행계획을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수산 1번지 완도군에서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열린다!

해양수산부 주관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가 완도군으로 최종 결정됐다.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 선정은 행사 개최 전년도에 후보지를 공모한 후 현지 조사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 행사는 4월 14일(잠정) 완도 청해진스포츠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1,500여 명의 전국 수산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공자 포상 등 기념식을 비롯하여 수산 정책 포럼, 수산물 홍보 및 '대한민국 수산대전' 등 판촉전, 치어 방류, 바다 쓰레기 수거, 마을 어장 가꾸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1월 9일에는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전라남도, 완도군 관계자들이 모여 기관별 역할 논의 등 행사 관련 실무회의를 갖는다.

완도군은 전복과 해조류 등 수산물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며 세계 곳곳으로 수출하는 등 우리나라 대표 수산 군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바다 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등 미래 해양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국비 1,442억원이 투입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수산업과 어촌의 가치 및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사를 우리 군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수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인의 날(매년 4월 1일)'은 지난 1969년 '어민의 날'로 시작했다가 2015년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양영율/기자

목포시, 중소벤처기업부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공모사업 선정

목포원도심상인회....4500만원 확보, 원도심 상점가 활기부여 발판

목포시는 상점가 대상으로 공모한 2024년 활성화지원 공모사업에 원도심상인회가 선정돼 4500만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상점가별 역량과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상점가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원도심상인회는 올해 축제, 이벤트, 문화공연, 플리마켓 등을 개최해 원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침체된 원도심 상점가의 매출 증대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인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상점가의 특성에 맞는 방안 모색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골목경제 성장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원도심 상인회는 2023년에도 중기부가 주관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돼 6700만원을 획득해, 정부 공동마케팅 행사인 '동행축제', 썸머워터워즈 행사(7월), 산타빌리지 행사(11월) 등 다양한 행사 추진으로 상점가에 활기를 부여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박종배/기자

장흥군, "청년정책이 달라진다" 기본계획 보고회 개최

복지·문화, 일자리, 교육, 주거, 참여·권리 5대 핵심 분야 도출

장흥군은 8일 군청 상황실에서 '장흥군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천영 부군수와 실과소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흥군은 청년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FGI), 청년정책 추진현황, 국·내외 청년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차적으로 도출해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연말 개최된 중간 보고회 및 청년발전협의체 2차 간담회 등을 통해 나온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최종보고서에는 ▲복지·문화(안전하고 즐거운 일상 보장) ▲일자리(도전과 기회 보장) ▲교육(발전에 대한 가능성 보장) ▲주거(걱정없이 살 수 있는 주거권 보장) ▲참여·권리(청년이 직접 수립하는 정책) 5대 핵심 분야 15개 주요 과제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최종보고회 참석자들은 청년 일자리 사업 확충, 설문조사 직업별 분석, 청년통계 신설, 전남 청년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사업 등 추진사업 반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천영 부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실마리는 청년들에게 있다"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청년 맞춤형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용역 보고서가 완료되면 장흥군 청년발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장흥군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재원/기자

경북도, 떫은감 신품종‘태홍’개발, 대과형으로 맛·모양 뛰어나

상주감연구소, 대봉감‘갑주백목’대체 곶감·반건시용 신품종 보호출원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상주감연구소는 대과형 곶감용 우량품종 ‘태홍’을 개발해 품종보호 출원했다.

‘태홍’은 일반적으로 대봉감으로 불리며 홍시, 반건시로 많이 이용되는 ‘갑주백목’의 단점을 보완한 대과형 떫은감이다.

‘갑주백목’은 전국적으로 재배되는 품종이나 감의 분류상 불완전 떫은감으로 종자 주변에 과육흑변의 생리장해가 발생하고, 과피에는 흑점이 발생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과육흑변의 경우 미관상 좋지 않아 상품성을 떨어뜨리고, 장기 보관 시 흑점에서부터 곰팡이가 발생해 저장력을 떨어뜨린다.

이번에 상주감연구소에서 육성한 ‘태홍’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완전 떫은감으로 과중 280g 정도, 당도 19°Brix, 과피색은 오렌지색을 띠고, 반건시와 홍시로 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맛과 모양이 뛰어나다.

숙기는 10월 하순으로‘갑주백목’에 비해 7일 정도 빨라 이상기후에 의한 만생종 품종의 서리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상주감연구소는 ‘상감둥시’, ‘금동이’등 곶감, 말랭이용 우량품종 개발과 동시에 정원수용으로 우수한‘미려’,‘홍아람’등 관상수를 포함한 8품종을 육성해 최종 품종보호 등록했으며, 올해는 씨 없는 감과 수분수 계통도 품종 출원을 앞두고 있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에 개발한‘태홍’은 상주감연구소에서 교배를 통해 육성한 최초의 신품종으로, 여러 생리장해를 가진‘갑주백목’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우량품종이라 매우 기대가 크다”며,“앞으로도 상주감연구소가 국내 유일의 떫은감 연구기관으로서 경쟁력있는 우수 신품종 육성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지방 4대 협의체 신년 간담회 개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한목소리!

1.8. 17:30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함께 모여…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 현안 논의해

부산시는 오늘(8일) 오후 5시 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지방 4대 협의체 '2024년 갑진년,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지방 4대 협의체가 구성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이 추진했던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안건들에 대한 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되짚어보고 올해 중점 추진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의체 대표 등은 모두 초저출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문제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는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중앙 주도의 지역 정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의 문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실현을 위해 4대 협의체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시도협), 지방의회 조직권 개선 및 지방의회법 제정(시도의장협),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시장군수구청장협), 지방의회 조직체계 개선(시군구의회협) 등 지방안건을 제안하고 상호 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방 4대 협의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기회·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지방시대 실현의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최우선 과제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에 다양한 혁신거점을 구축하는 다극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특히, “다극체제 전환의 마중물이 될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17개 시도가 충분히 숙의하고 협력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지방4대협의체장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요점은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소멸 문제는 단순히 특정 자치단체와 부처의 업무가 아닌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라며,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방의 목소리를 더욱 대변해 지역 주도의 지역균형발전이 대한민국 모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와 상생·협치하며 주민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라며, “시군자치구의회가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성장 주체로 일하기 위해서는 조직권 부재, 불합리한 사무기구 조직 체계 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2024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위원장이자 지방지원단의 대표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방과 중앙이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희태/기자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대구시 'Limbo Dance: 대지와 사물 사이를 지나는 방법'

1월 전시 연계 워크숍으로 관람객 맞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예술발전소에서 2023 실험적프로젝트IV 〈Limbo Dance: 대지와 사물 사이를 지나는 방법〉이 펼쳐지고 있다.

2023 예술창작공간 실험적 프로젝트 기획자 공모에서 선정된 'Limbo Dance: 대지와 사물 사이를 지나는 방법 은 임휘재, 도혜민, 김은정 오윤정, 박신혁이 기획하고 김동우, 김민지, 김은주, 김휘아, 박지윤, 박태훈, 배규무, 오의진, 이설, 정혜정, 주슬아 등 11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인간과 주변 존재에 대한 당대적 질문을 드러내는 방식을 탐구하고 공유한다.

전시는 2024년 2월 18일 까지 관람객을 맞이하며, 1월에는 다양한 연계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다.

《Limbo Dance》는 림보 댄스의 행위와 규칙을 은유적으로 사용하여 존재에 대한 고민을 탐구한다.

고개를 뒤로 젖혀 마주하는 새로운 시야를 통해 세계의 경계를 뒤흔들고 혼종(hybrid)의 복잡한 관계성을 바라보도록 한다.

점차 낮아지는 막대와 그 아래를 지나는 림보 댄스의 규칙과 같이 대지와 사물 사이를 통과하는 인간의 움직임에서 자연, 인간, 사물이 마침내 평평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본다.

전시에서 만나는 작품을 통해 낯선 자세를 취하며 인간의 위치를 재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사유가 실천되기를 희망한다.

1월에는 Limbo Dance 참여 작가가 직접 진행하는 전시 연계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다.

김휘아 작가는 관람객이 제작한 창조물로 새로운 세계를 전시장에 구축하는 'The Creator'와 연계하여 ‘소원 텔레포트’를 기획했다.

점토와 물감을 이용하여 소원 운석을 만든 다음, 3D 스캐닝을 통해 'The Creator'의 일부인 가상세계(VR) 속으로 참여자의 창작물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한다.

워크숍은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오의진 작가가 진행하는 ‘콤플렉스 이완하기’는 작가와 관람객의 손에서 탄생한 사이보그들의 세계를 구현한 ' 사이보그 설화 – 이완된 세계'와 연계하여 기획됐다.

다양한 기물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자신의 콤플렉스나 신체적 비밀을 돋보이게 해줄 오브제/보조장치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워크숍을 총 2회에 걸쳐 진행한다.

전시 연계 워크숍 참여 신청은 대구예술발전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대구예술발전소의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18시(4월부터 10월 하절기 운영시간 10:00 부터 19:00)까지 관람할 수 있다.

단체관람은 대구예술발전소 홈페이지 참고하여 예약 후 관람할 수 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2024년 청년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청송군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의 발굴 및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영농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월 90~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최대 5억한도)과 기술·경영 교육 및 상담(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매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영농경력 10년 미만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평가와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세대당 최대 5억원 한도(연리 1.5%, 5년거치 20년상환)의 융자금과 함께 각종 영농교육과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희망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송군청 농정과 농정기획팀에서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업 경영에 뜻이 있는 유망한 인재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길 바란다”며, “많은 청년들이 청송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건설공사 합동설계단 운영

자체설계를 통한 예산절감과 역량확대를 위한 설계단운영

영양군은 1월 5일 금요일 부터 건설안전과장을 단장으로 시설공사 관련 시설직 공무원 26명으로 구성된 2024년도 건설공사 합동 설계단을 운영을 시작했다.

영양군은 1월 8일(월) 관련 시설직 공무원들과 발대식을 갖고 합동설계단의 운영을 바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작으로 2월 29일까지 도시개발사업 및 농업 기반사업, 주민 숙원사업, 도로 및 교량사업, 상수도, 하수도 및 관광개발사업, 하천사업 등 6개 반으로 편성하여 총 444건(24,009백만 원)의 사업에 대하여 합동설계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영양군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인 5월까지 소규모 사업들을 완료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시작하여 일제히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극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한다.

현재 신규 공무원들이 많은 시설직 공무원에게는 이 기회를 통하여 선배들에게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기술 전수 등을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이는 시설사업에 대한 실무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예산 절감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금년에도 우리 군의 건설 사업에 대한 합동설계반을 운영하고 소규모 건설공사를 빠르게 마무리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건설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 경기를 살리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도청,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한 산림토목사업 안전·보건 교육 실시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8일 경상북도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및 산림조합 임직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산림토목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상 의무(조치)사항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자체 점검 등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사업은 주로 험난한 산지에서 이루어져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높으며, 특히 경사지 벌목 작업과 공사 자재 운반 과정에서 장비 전복 및 끼임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산림사업장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대한산업안전협회경북북부지회 권우덕 차장을 초빙하여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 및 체제 구성의 이해 ▲주요 사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공사 발주 시 유해·위험방지 조치사항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사업 전반에 걸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에 대한 기준 정립과 현장 경험 사례 공유 및 대응책 수립 등 토론 자리도 함께 마련했다.

한편, 북부지원에서는 지난해 전례 없는 극한호우로 인해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산사태 피해(142ha)에 대해 약 426억원을 투입하여 올 상반기 중 복구 완료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임도·사방·산사태 복구사업의 2월 중 조기 착공 전 중대재해 예방 자체계획 수립 등 산림재해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재완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산사태복구사업을 포함한 산림토목사업이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발주처에서도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중대재해 제로(0%)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관광거점도시 안동, 통합VI 디자인 공개

훈민정음해례본의 고장답게 고유한 정체성 담아

ANDONG 안동시

관광거점도시 안동이 통합 VI(Visual Identity)을 제작해 디자인을 공개했다.

VI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지역문화와 전통을 시각적인 디자인 요소로 표현하는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포르투갈의 포르투와 미국의 아이러브뉴욕(I♥NY)이 대표적이다.

안동시의 통합 VI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고장이란 특성을 살린 국문형과 영문형으로 제작했다.

국문형은 안동이란 한글 초성'ㅇ, ㄷ'과 한글 종성'ㄴ, ㅇ'을 메인 모티브로 미래지향적인 역사문화도시 안동의 정체성을 표현했다.

영문형 비주얼로고는 양쪽의 'N'을 '날개'로 형상화해 세계유산도시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글로벌 위상을 표현했으며 'DO'에 포인트를 주어 안동의 미래 지향성과 생동감을 담았다.

하회마을과 월영교, 도산서원, 안동소주, 안동찜닭 등 비주얼 아이콘 10종도 마련했다.

국·영문형 비주얼 로고와 일관된 톤앤매너(Tone&Manner)를 유지하며 안동의 다양한 자산으로 확장 가능한 디자인으로 구성했다.

메인 색상인 블루와 레드컬러의 연결과 조화로 안동의 대표 유·무형 자산을 형상화했다.

안동의 문화, 정신, 자산 등의 정체성을 담아낸 비주얼 모자이크 패턴 3가지도 마련했다.

하회별신굿탈놀이의 탈춤과 춤사위의 유려한 선, 즐거움 등을 기존 관광브랜드인 'SMILE FOREVER ANDONG'과 결합해 표현했다.

또 하나는 안동의 한글 자모음과 옛 한글을 패턴화해 한국정신 문화의 수도 안동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음과 원의 결합으로 안동시민과 관광객 모습을 표현했다.

마지막 패턴은 하회마을과 월영교, 안동소주 등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안동의 다양하고 매력적인 역사문화 관광 요소를 패턴 디자인으로 형상화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그동안 하회탈 외에 안동을 상징하는 디자인이 부족해 지난해 5월부터 관광거점도시 안동을 시각화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위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통합VI 디자인을 확정했다"라며 "기존 관광브랜드와 조화롭고, 안동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비주얼 로고와 모자이크 패턴 등이 마련된 만큼 포르투와 뉴욕에 버금가는 관광도시 안동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농작물재해보험 시비 추가 지원… 농업인 자부담 비율 10%로 경감

"지속가능한 영주농업 위해 경영 안전망 확충 노력 계속"

경북 영주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영주농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늘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농가의 안정을 위해 호우, 태풍 및 우박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기 위해 2001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시는 보험료 중 농업인 자부담 금액의 일부를 시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내용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자부담 비율 15% 중 시비로 5%를 추가 지원해 국비 50%(국가직접 지원), 지방비 40%, 농업인 자부담 10%로 농업인의 자부담을 낮춘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에 10억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재해보험 예산 총 55억 원의 시비를 확보했다.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역 농.축협과 품목농협에 방문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자부담을 납부하고 가입하면 농업정책보험 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입실적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지난해 우리 농업 현장은 봄철 저온 피해부터 시작해 여름 폭우와 태풍 가을 우박피해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가 컸다"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영주 농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5 APEC 경주 유치, 도내 6개 주요기관 업무협약 맺어

경북도, 경주시, 시 · 도의회, 경북문화관광공사, 경주화백컨벤션뷰로 6개 기관 업무협약 통해 전폭 지원 확약

경주시, 경북도, 시·도의회, 경북문화관광공사, 경주화백컨벤션뷰로가 2025 APEC 경주 유치를 위해 힘을 합쳤다.

경주시는 경북도, 도의회, 시의회, 경북문화관광공사, 경주화백컨벤션뷰로 6개 기관이 8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6개 협약 기관장을 포함해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경북도의회와 경주시의회의 유치특별위원회 및 경북도 민간추진위와 경주시유치지원위 위원들도 동참해 APEC 유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APEC 유치를 위한 경북도와 경주의 강점을 부각하는 유치제안서 작성을 비롯해 각종 홍보사항과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북도와 경주시는 도의회와 시의회, 유관기관인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주화백컨벤션뷰로와 업무협약을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를 위한 전폭적 지원을 재차 확인했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향후 공동 홍보, 보유 시설 및 인프라의 활용,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사업발굴과 추진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해 경북도민과 경주시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100만 서명운동 돌입해 불과 85일만에 146만명이 참여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며, "전 국민적 유치 의지가 확인된 만큼 향후 유치신청서 제출과 현지 실사단 평가를 빈틈없이 준비해서 반드시 경주가 유치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는 현재 유치 의사를 드러낸 도시 중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서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과 지방시대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국정목표 실현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라며, "성장 동력과 발전 가능성면에서도 경북과 경주는 APEC 개최 시 국내 어느 곳 보다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오는 4월경으로 예상되는 개최도시 선정을 앞두고 유관기관과 민간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대정부 유치활동과 함께 시도민의 유치 의지를 더욱 결집하고 전국적인 유치 공감대 확산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타용/기자

예천군 2024년 건강키움 체조교실 운영

떡국으로 먹은 1살, 체조로 10살 젊음 되찾자!

예천군은 8일 예천희망키움센터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키움 체조교실'의 첫수업을 시작했다.

건강키움 체조교실은 12월까지 진행되며 사전 신청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3개팀(실버팀, 여성팀, 남성팀)으로 나눠 ▲실버팀 매주(월, 수)9시 30분 부터 10시 30분, ▲여성팀 매주(월, 수)11시부터 12시, ▲남성팀 매주(화, 목)11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동절기인 3월까지는 매주(월)19시30분부터 20시30분까지 야간 실내체조교실도 함께 운영하며 건강체조, 라인댄스, 에어로빅 등 다양한 체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날 교육에 앞서 군민 걷기 운동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뚜벅이 걷기'를 알리며 지역주민들이 함께 걷기 운동에 참여할 것을 홍보했다

안남기 보건소장은 '건강 100세 시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을 위해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기타 건강체조교실 운영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금자/기자

영덕군, 자연재해 대비 농업인 재해보험료 75억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확대

영덕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갑작스러운 농가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 보험료를 90%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영덕군은 올해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호하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작업 사고를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 보험, 그리고 농기계 종합보험 총 3가지를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은 현재 가입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의 경우 관내 전체 농가의 52%인 3,192개 농가가 가입해 2,256개 농가에 87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며, 농업인의 선호도와 필요성 등을 분석해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영덕군 김기동 농업정책과장은 "증가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경영과 생산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사업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품목별 판매 기간에 맞춰 가까운 지역 농협이나 대구경북능금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문화/기자

문경복 옹진군수 연평면 안보태세 점검 나서

주민 대피소 집중 점검 및 주민 민생안정 행보

옹진군은 지난 8일, 문경복 군수가 연평면을 방문하여 주민 대피소 등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북한 포 사격으로 불안감과 긴장감이 고조된 주민들의 민생안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갑작스런 북한의 포사격으로 인해 서해5도서(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인근 대피소로 몸을 피했었고, 오후 3시 46분경 상황이 해제되며 집으로 귀가했었다.

이번 안보태세 점검은 평화공원 헌화 및 분향을 시작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민보호를 위한 대피소의 대비태세를 집중 점검했으며, 경로당 등 민생현장을 돌며 포 사격에 놀란 주민들의 안정을 도왔다. 연평면은 총 10개의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난 대피 때는 연평 주민 508명이 대피소를 이용했었다.

문경복 군수는 "서해5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당부했으며, 북한의 잦은 도발로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감내해 온 서해5도서 주민들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울진군 한울본부, 관내 26개교 졸업생 장학금 전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1월 5일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제54회 졸업식에 참석하여 '한울본부 우수졸업생' 표창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울본부는 '울진군 초·중·고 우수졸업생 표창 및 장학금' 사업을 시행하여 울진군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표창대상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습태도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로 선정한다.

표창대상자는 총 55명이며 한울본부장 표창장과 함께 장학금 총 2천 320만 원을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이 수여될 것이다.

송만영 교장은 "한울본부의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 라며 "사회로 첫 출발에 나서는 졸업생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셔서 학생들에게는 큰 귀감이 될 것" 이라고 감사 인사를 남겼다.

이세용 본부장은 "이번 54회 졸업생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하겠다" 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울본부는 우수졸업생 장학금 지원 외에도 체육특기생 장학금 지원 등 울진군 학생들의 사기진작과 미래인재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다.

장문화/기자

경북도, 동절기 궤양제거로 화상병 확산 차단 선제적 대응!

동절기 궤양제거, 화상병 사전예방 첫 단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5일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사과 실증시험포에서 화상병 사전예방 교육 및 궤양제거 연시회를 실시하고, 화상병 월동잠복처인 궤양제거를 시작으로 선제적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연시회는 화상병 과수 주산단지 9개 시군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경상북도 화상병 예방·방제 지침 설명과 안동시 화상병 방제 현황 및 사례를 발표했으며, 궤양 증상 및 제거요령 설명, 궤양제거 시연으로 진행됐다.

화상병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금지병해충으로 감염되면 확산이 빠르고 치료제가 없어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과수가 세균에 감염되어 나무 일부분이 함몰되거나 갈라져 나타나는 증상인 궤양은 화상병균의 월동잠복처로 월동 후 이듬해 병균이 증식하여 표피 외부로 유출되어 새로운 전염원이 되고 수액으로 이동해 전파될 수 있어 동절기 궤양제거는 화상병 확산 차단의 첫 단계로 필수 작업이다.

농가에서는 동계전정 시 궤양 증상이 관찰되면 하단 끝부터 40~70cm 이상의 아래쪽을 절단하고, 절단 부위에는 티오파네이트메틸 도포제 등 소독약을 발라야 한다.

또, 화상병균은 전지가위표면에서 6~12시간까지 생존하고 작업복 등에서는 20일까지 생존 가능하므로 농작업 전·후 반드시 작업자와 작업 도구를 소독해야 한다.

경상북도에서 화상병은 2021년에 안동시와 영주시에서 첫 발생 후 2023년에 안동시와 봉화군에서 26농가 64개 과원에서 발생해 17.7ha를 매몰 방제했고, 공적방제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36억 원을 집행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올해 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전약제 방제비 140억 6천만원을 확보하여 4회의 화상병 전용 약제를 지원하며, 농업인 교육강화, 동절기 궤양제거, 정기예찰, 방제적기 정보제공 등을 통해 화상병 재발생 및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경상북도는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의 60.3%를 차지하는 사과 주산지인 만큼 경북도에서 화상병 확산을 차단해야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유지된다"며 "과수농가에서는 화상병 확산 차단의 첫 단계인 동계 궤양제거 작업부터 철저히 시작하고 개화기 전후 약제 방제시기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디딤씨앗통장 확대 지원

영양군은'24.1월부터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대상과 연령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성인이 될 때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보호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두 배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예를 들어 3만원을 적립하면 6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은 최대 10만원으로 18세 미만까지만 지원된다.

18세 이후 학자금과 주거비 마련,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24세 이후에는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기초생활 수급 아동의 가입 연령을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확대하고 생계·의료급여로 한정됐던 소득 기준도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정 아동까지 범위를 넓혔으며 가정위탁, 시설입소 아동 또한 가입이 가능하다.

영양군은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로 관련 예산을 작년 35백만원에서 올해 145백만원으로 증액했으며 90여 명의 아동들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가입 신청은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용방법 등을 상담 후 가능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공평한 기회와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개인으로 성장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역량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빛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윤근수/기자

배진태 봉화부군수, 읍면 초도순방 나서

봉화군 신임 배진태 부군수가 8일부터 10일까지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0개 읍면 초도순방을 실시한다.

지난 1일 취임한 배 부군수는 8일 봉성면을 시작으로 명호면, 재산면을 방문해 읍면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순방을 통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부딪히며 묵묵히 애쓰는 읍면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신뢰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9일은 석포면, 소천면, 춘양면, 법전면, 10일은 물야면, 봉화읍, 상운면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배진태 봉화부군수는 "원활한 일선 지방행정 수행과 능동적으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직자 간 소통이 중요하다."며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를 건설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는 부군수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구미시,'마음 이음 우체통'운영…손 글씨로 희망 나눠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우울을 예방하고 마음 건강증진을 위해 손 글씨로 희망을 나누는'마음 이음 우체통'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 마음건강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알렸다.

지난해 하반기 삼일 문고와 도서관 6개소(중앙, 봉곡, 상모정수, 인동, 양포, 경상북도교육청 구미)에 우체통 구조물을 설치했으며,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비치된 마음 이음 엽서는 △지인에게 보내는 안부 엽서 △스스로 응원하는 위로 엽서 △상담을 요청하는 도움 엽서'로 세 가지다. 나와 타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김희숙 센터장은 "마음 이음 우체통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춰 손 글씨로 나와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쉬어가길 기대하며, 필요시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마음 건강 서비스로 도움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신건강과 자살 위기 무료 상담은 메타버스 상담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동현/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한국갤럽 '23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특·광역시장 중 1위 기록!

평가 시작 해인 2014년 이후 역대 부산시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율 기록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한국갤럽의 지난해 하반기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특·광역시장 가운데 긍정 평가 1위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 또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 한국갤럽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유권자 2만 1천30명(부산시 1,374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를 실시했다.

'2023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긍정 평가 56%, 부정 평가 28%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5%, '모름/응답 거절'은 11%다.

이는 부산을 비롯한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광주(세종은 사례 수가 적어 수치를 제시하징 않음) 시장의 긍정 평가 가운데 가장 높았고, 부정 평가는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한국 갤럽이 시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역대 부산시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정치 성향에 따른 평가에서도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49%, 진보층에서도 긍정 평가가 39%나 됐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박형준 시장의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과 정책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16개 시도지사 중에서는 이철우 경북지사 62%, 김영록 전남지사 60%, 김동연 경기지사 58%에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이 긍정 평가 56%로 4위를 기록했다.

김희태/기자

대구 남구,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 및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2024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및 지원 기간'을 특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대구 남구는 계절형 실업 및 한파, 대외 활동 감소 등으로 취약계층 위협요인이 가중되는 겨울철에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위기가구 적극 발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및 지원 기간을 특별 운영한다.

이에,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남구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사회복지기관 등과 함께 민·관이 협력하여 겨울철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취약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 자원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남구는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를 통해 복지 위기 징후 가구 중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이 어려운 가구에 복지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복지 소리함, 지방세 고지서, 음료의 컵홀더, 각종 행정 봉투 및 서부 정류장 외 4곳 주요 네거리의 전자게시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겨울철 취약계층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대구시 뇌질환 진단이 가능한 조영제 개발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글루타티온 타켓으로 하는 MRI조영제 개발

케이메디허브 연구진은 알츠하이머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루타티온을 타겟으로 하는 MRI 조영제를 개발했고, 관련 발명을 PCT(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출원했다.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의 증가는 뇌 항산화제인 글루타티온의 감소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조영제를 개발했다.

해당 조영제를 사용하면 MRI를 통해 글루타티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비침습적으로 뇌질환 연구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에 개발된 조영제를 전임상과 임상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활용가능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다.

해당 출원은 케이메디허브 김희경 선임연구원(전임상센터 생체영상팀)을 주축으로 정회수 선임연구원, 신창훈 연구원, 김동선 연구원(전임상센터 생체영상팀), 권태준 선임연구원(전임상센터 융복합평가팀)이 함께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2023년 11월 29일자에 글루타티온 감응형 신규화합물 및 이의 의학적 용도라는 명칭으로 PCT 출원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비침습적 영상 진단 기술은 임상 적용 가능성이 높으며 새롭게 개발된 조영제가 타겟 물질과 관련된 많은 질병들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참여

청송군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Bye Bye Plastic)캠페인에 참여한다.

바이바이 플라스틱은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줄이고, 착한 소비 실천을 촉구하는 캠페인으로 다음과 같은 10가지 실천 수칙이 있다.

1.장볼때 장바구니 이용하기
2. 신석식품 주문할 땐 다회용 보냉백 사용하기
3. 물티슈,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4. 포장이 많은 제품 사지 않기
5. 중고제품이나 재활용제품 이용하기
6.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7.배달 주문할 때 안 쓰는 플라스틱 받지 않기
8.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9. 포장 없는 리필 가게 이용하기
10. 내가 쓴 제품은 분리배출까지 책임지기

윤경희 청송군수는 "깨끗한 환경을 위해 청사 내 다회용품 사용을 독려하고, 군민들께서도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의 지목을 받은 윤경희 군수는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김종두 청송농협 조합장을 지목했다.

윤근수/기자

장상길 포항부시장, 취임식 생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첫 행보 '눈길'

현장 직접 뛰며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 강화해 나갈 방침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8일 창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난 1일 포항시 제23대 부시장으로 취임한 장상길 신임부시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첫 민생 행보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에는 장상길 부시장을 비롯해 자치행정실장, 복지국장 등 간부공무원들과 포항시공무원노동조합 김무윤 지부장 등 노조임원들이 함께 참여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힘을 보탰다.

장 부시장이 첫 민생 행보로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한 것은 민생현장 속으로 들어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항의 미래를 만들어 갈 기초를 다지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 행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상길 부시장은 지난 1일 취임 이후 국별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업무 및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신속하게 업무에 돌입했으며, 이날 첫 민생 행보를 시작으로 향후 현장을 직접 뛰며 지역 주요 현안 사항과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타용/기자

스포츠에 기술과 즐거움을 더하다…영등포구, 'YDP 가상현실 스포츠관' 개관

평일 10시~18시…구민, 타 지역 주민도 별도 예약 없이 이용 가능

영등포구가 1월 8일,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1층에 106.4㎡ 규모의 'YDP 가상현실 스포츠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상현실 스포츠관은 실내에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스포츠 게임과 러닝, 바이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누구나 날씨와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실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구는 2022년 서울시 체육진흥과가 주관한 '공공체육시설 내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예산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YDP 가상현실 스포츠관을 조성했다.

운영 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8시까지이다.

평일 점심시간(12시부터 13시)과 주말,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이용 대상은 청소년, 성인이며, 구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방문 대장을 작성하고 이용하면 된다.

구는 개관 후 3개월간 무료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추후 운영 시간과 예약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다.

내부 공간은 ▲인공지능 맞춤 플랫폼(AI Fit Platform) ▲스마트 러닝 ▲스마트 바이크 ▲스마트 로잉, 총 4개의 구역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 맞춤 플랫폼(AI Fit Platform)'은 이용자의 모션을 인식해 스키점프, 카약, 축구, 자동차 레이싱 등 18종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일부 콘텐츠의 경우는 휠체어 이용자도 체험이 가능하다.

'스마트 러닝'은 가상 환경 육상대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 최대 4명의 이용자가 한 공간에서 육상 경기와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그룹별로 경쟁하고 결과를 비교할 수 있으며, 목표 거리와 시간을 설정하면 이용자 아바타 옆에 가이드 아바타가 생성돼 목표에 맞춰 완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 바이크', '스마트 로잉'은 다양한 시뮬레이션 배경을 설정해 다른 이용자와 경쟁하거나 혼자서 이용할 수 있다.

기록 관리와 완주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 효과도 증진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YDP 가상현실 스포츠관은 첨단 가상현실 기술과 운동기구를 접목한 공간으로, 이용자 누구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을 증진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수요에 발맞춘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에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황신/기자

송파구, 가격·품질·서비스 우수한 '모범주유소' 2곳 선정

값싸고 친절한 2024년 모범주유소…스마트위례주유소, 남성대주유소

송파구는 관내 위치한 지에스칼텍스㈜스마트위례주유소(위례동)와 남성대주유소(장지동) 2곳을 '2024년 모범주유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주요소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석유류 제품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모범주유소를 선정하고 있다.

우선 관내 28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가정보시스템을 통해 1년간 가격을 조사하여 1차로 석유제품 가격이 낮은 10개 주유소를 선정했다.

이후 10개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2차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 모범주유소 평가 기준에는 안전한 주유소 환경을 위해 '안정성' 항목을 추가해 품질, 가격 표시제, 청결상태, 편의시설, 친절 서비스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 편의시설 등이 우수한 주유소 2곳을 모범주유소로 최종 선정했다.

새롭게 선정된 지에스칼텍스 ㈜스마트위례주유소, 남성대주유소에 '모범주유소 명판'과 각종 운영 물품을 수여했다. 또한 앞으로 관내 모범주유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송파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해 주유소 이름과 주소를 게재해 지역 주민들과 송파구를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역 주민에게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청결하고 편리한 주유환경을 위해 애써준 모범주유소 선정업체에 감사를 표한다"며, "모범주유소를 소비자들에게 적극 홍보해 품질 좋고 가격도 저렴한 모범주유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흥수/기자

성북구 길음1동 천사들이 만드는 따뜻한 겨울…3년째 저금통 깨는 자매, 라면 모아 기부 태권도장 어린이들

3주간 모은 라면 20상자를 길음1동주민센터에 기부한 길음인성태권도장 어린이들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길음1동 어린이 천사들의 따뜻한 기부가 이어지며 2024년 새해에도 지역사회 사랑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

매년 생일이 되는 연말이에 예원, 지원 자매는 저금통을 깨트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올해도 직접 구매한 쌀과 라면 상자를 들고 길음1동주민센터를 찾아왔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품을 기부한 지 벌써 3년째다.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인데 1년 동안 모아놓은 용돈 중 일부를 매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부모님의 교육철학으로 나눔 실천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며 예원, 지원 자매는 나눔을 통해 생일이 있는 연말연시를 특별한 날로 기념하고 있다. 기부한 라면과 쌀은 중장년 1인가구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힘찬 기합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길음인성태권도장(관장 신승용)에서 3주간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어려운 이웃과 나눌 라면 20박스를 모았다.

몇 년째 연말마다 하던 행사인데 올해는 특별히 동주민센터를 통해 기부하고 싶다며 길음1동주민센터를 찾아왔다.

신승용 관장은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에서 시작한다"라며 "관생들이 어릴 때부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매년 라면을 기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라면은 저소득층 이웃 20가구에 전달됐다.

어린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라면을 받은 김○○(76세) 어르신은 "아이들이 직접 기부한 라면이라니 더 맛있을 것 같다. 덕분에 다양한 라면을 맛볼 수 있어 좋다"라고 말했다.

길음1동 주민센터 김진옥 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어린이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더욱 밝고 멋진 새해가 된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나눔이 더 뜻깊어질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성동구,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 서비스 개시

17개 동 주민센터에서 칼갈이·우산수리 서비스 무료 제공

손때 묻은 제 우산이 사용한 지 10년이 되어 고장이 났답니다. 그런데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고장이 나도 버릴 수가 없어 속상하기만 했는데 성동구 찾아가는 우산수리 서비스를 받아 완전히 새 우산이 됐어요. 정말 감사하고 기뻤답니다.(행당2동 김00)"

서울 성동구의 대표적인 생활밀착 서비스인 '찾아가는 칼갈이·우산수리 서비스'가 1월 10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칼갈이·우산수리 서비스가 있는 날, 동 주민센터는 입소문을 타고 찾아온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만큼 인기다.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매월 1회 각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해당 서비스는 성동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비용을 낼 필요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세대별 가위를 포함한 칼 3개, 양·우산 2개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특히, 생활 속 필수용품이지만 버리기 아까운 무뎌진 칼과 고장 난 우산을 수리할 곳이 마땅치 않아 불편을 겪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요즘 자원절약 실천은 물론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기까지 해 더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동 주민센터별 운영 일정에 따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며,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접수 마감은 오후 4시 30분이나 이용자가 많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동될 경우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18년도부터 구민들의 호응 속에 매년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일 평균 40명이 방문하여 약 2만 6,500개의 칼과 우산을 수리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많은 주민들이 해당 서비스를 만족하며 많이 이용하고 계신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더욱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발굴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서대문구, 누구나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불광천 수변 거리 조성

불광천 해담는다리~증산2교 간 265m 구간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관내 불광천길 일대를 지역 문화와 가로 상권이 성장하는 수변활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불광천 변 휴게공간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불광천 해담는다리에서 증산2교 사이 265m 구간(북가좌동 352-1 일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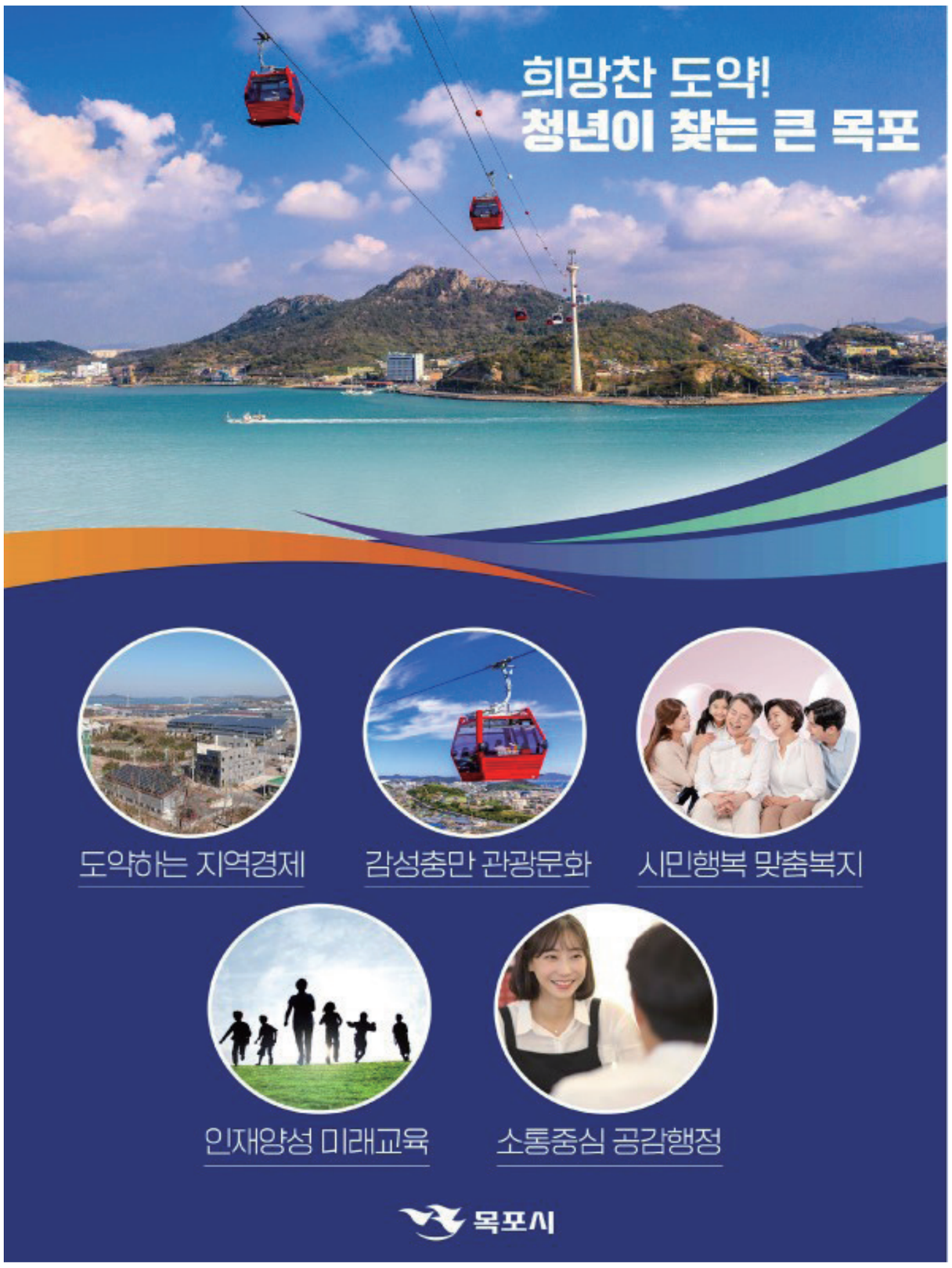
구는 올해 12월까지 이 구간 내 3곳에 별빛마루, 해담는마루, 이팝테라스 등 하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수변 스탠드를 조성한다. 또한 휴식공간인 그늘마루를 만들고 보행 덱(deck) 폭을 최대 5m까지 확장한다.

아울러 이 공간을 보다 개방적인 장소로 전환하기 위해 보행 접근성과 경관을 저해하는 통신주와 전신주 등을 이전 설치하거나 지중화한다.

구는 공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안내 간판과 교통 통제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불광천 변을 확 트인 수변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수변 거리로 전환하겠으며 이를 통해 문화와 함께 지역 상권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 CES 2024 참가, 道 미래산업 시장 확대에 나선다.

세계 최대규모 국제전자소비재박람회, 글로벌 기업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월 8일~13일까지 4박 6일간 반도체,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도 핵심 미래 산업의 성장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과 정책을 글로벌 시장에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나선다.

먼저, 김진태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G-Frontier Project 추진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자소비재 박람회인 CES 2024(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참석한다.

박람회 주최측의 선정평가를 통과하여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도내 기업은 총 10개사로 그 중 3개사는 유레카 파크 한국관에, 나머지 7개사는 디지털헬스관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CES에 참가하는 도내 바이오 분야 기업체와 함께 글로벌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도의 의료기기·바이오 헬스 등의 기술을 홍보하여 수출확대를 이끌어 내고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삼성·현대자동차·LG전자 등 국내 대기업 부스도 방문하여 차세대 혁신기술을 배우고 도의 비전과 정책 등을 소개하면서 도의 미래산업 육성 의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 CES의 핵심 키워드가 AI, 모빌리티로 우리 도의 핵심 미래 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CES참관을 통해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도의 미래산업 육성 전략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추진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자리를 옮겨 강원특별자치도 가주(캘리포니아) 도민회(초대회장 주부권)를 방문할 예정이며, 김진태 도지사가 직접 미주 도민에게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앞으로 도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도내 기업의 미국 서부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도민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1.11에는'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 협력 기반을 다져 줄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국 의료 수출 1호 병원'으로 불리는 'CHA 할리우드 프레즈비테리언 메디컬 센터'를 방문하여 차바이오그룹의 미국 자회사인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도가 먼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주)오톰의 협약식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추진단의 이번 1월 미국 방문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도정의 새해 첫 걸음"이라며, "미국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시장인 만큼 미래산업 시장의 동향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분석하여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미국 출장을 위해 구성된 추진단은 최소인원, 최소 일정으로 방문단을 꾸려, 벤치마킹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등원/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갑진년 시정 키워드 '성과와 현장'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 주재…"성과 중심, 현장 중심 시정" 강조

박경귀 아산시장은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조직의 모든 운영은 '성과 중심'과 '현장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박 시장은 "2024년은 민선8기가 후반기로 접어드는 중요한 해로, 체계적인 성과를 이뤄야 한다"면서 "인사, 조직, 예산, 기획까지 모든 업무를 성과 중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기존에 해왔던 사업도 성과를 점검해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직렬과 정원 역시 기간제 직원의 관행적인 증원을 막고 과감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관 이상 전원 확대간부회의 참석 및 부서별 유기적 협업 ▲공무직 대상 업무평가 및 순환 전보 적용 ▲부서별 인수인계 철저 ▲외부기관 평가, 신규 발굴 ▲정부 공모사업 도전 목표 제시 등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간부들에게 '현장 중심'의 업무를 당부했다.

박 시장은 "저는 항상 현장에서 발품을 팔며 시정을 파악했고, 이 때문에 민선8기 사업을 현장 중심적으로 펼 수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국장·과장이 직접 현장 중심으로 뛰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시장 혼자 뛸 순 없다. 간부들이 더 많이 뛰고, 현장에 밝아야 한다. 시장이 모르는 현장의 상황을 간부들이 파악해 사업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그래야 시장은 더 큰 일에 나설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박 시장은 ▲읍면동 열린 간담회 사전 준비 만전 ▲본예산 삭감 대응 상반기 추경예산안 조기 편성 ▲재선충 확산 방지책 점검 ▲이민청 유치 서명 적극 추진 ▲불법현수막 범칙금 부과 등 단속 강화 ▲보조금 단체 관리·감독 철저 등을 주문했다.

김원호/기자

충북도, "혁신과 개혁의 실행이 도민 삶에 연결돼야"

김영환 지사, 2024년은 도정 혁신과 개혁의 원년

"2024년 충북의 혁신과 개혁은 다방면에 걸쳐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1년 뒤 충북에는 예상치 못한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2024년을 혁신과 개혁의 원년이라는 생각으로 도정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올해는 충북 교통의 원년, 농업의 원년, 투자유치의 원년 등으로 생각하고 질적인 변화와 함께 어떤 혁신과 개혁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실행하라"며 "실행의 성과가 도민들에게 체감되고, 삶에 연결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과 개혁의 성과가 1년 뒤 전국적으로 빛나는 한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의 크기를 크게 갖고 담대한 제안을 통해 국가의 정책을 선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출생 증가율 전국 1위'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충북의 성과에 대해 관계 공무원을 치하하면서 출생 증가를 위한 더욱 세심하고 촘촘한 정책 발굴과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과 법률 개정안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춘천시 임신·출산 관련 지원사업 소득 기준 폐지

기존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 → 소득 기준 폐지

춘천시가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사업 소득 기준이 당초 기존 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였지만, 이를 폐지했다.

지원 한도는 난임 시술 종류별 1회당 최대 20만원 부터 110만 원까지 총 21회다.

단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여성은 강원특별자치도내 6개월 이상 거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19종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 300만 원 한도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임신 37주 미만, 체중 2.5kg 미만 출생아인 미숙아는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의료비를 지원한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한 경우 수술(500만 원 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청 검사를 위한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대상으로 선별검사비 및 확진 검사비(7만 원 한도) 지원하고, 만 5세 미만 영유아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 원 한도)한다.

최만식/기자

충남도 '고추 흰비단병' 친환경 방제법 개발

정식 전후 1주 간격 무기황합제 관주 처리 시 74% 방제 효과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고추 재배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추 흰비단병에 대한 새로운 친환경 방제법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고추 흰비단병균은 고추·감자 등 국내 72종의 기주식물에 흰비단병·줄기썩음병을 일으키며, 감염된 작물 전체를 고사시키거나 부패하게 만드는 다범성 병원균이다.

증상은 역병이나 풋마름병과 유사하지만, 줄기 밑동이나 주변 흙에 하얀색 곰팡이 균사를 형성하고 배추 씨앗 모양의 갈색 균핵을 다량 형성한다.

또 이 균핵은 토양 속에 장기간 생존이 가능해 월동 후 전염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발생하면 방제가 무척 어렵다.

특히 고추 흰비단병에 등록된 방제약제는 정식 전 토양처리 약제 뿐으로, 생육기 중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없어 발병 시 농가에서 방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과는 고추 흰비단병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추진해 왔다.

도 농업기술원은 흰비단병 방제제로 9종의 유기농업자재를 연구한 결과 석회석 5%, 무기황 95%의 무기황합제가 흰비단병균의 균사가 자라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균핵도 발아하지 못하게 함을 알아냈다.

방제 방법은 무기황합제를 500배 희석해 정식 전후 1주일 간격으로 지제부에 충분히 관주하는 것으로, 해당 방법을 활용하면 74% 정도의 방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김병련 도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과 연구사는 "고추 흰비단병은 다양한 작물에 발생·전파되고 고온성 병원균이라 고추 재배 기간 중 쉽게 발병해 생육초기부터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개발한 무기황합제를 이용한 방제 기술이 흰비단병 방제제가 부족한 친환경 재배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태백시, '낙동강발원지 힐링시티타워 조성사업'착공

태백시는 지난 2020년부터 기본구상용역을 시작으로 추진해 왔던 '낙동강발원지 힐링시티타워'가 2024년 1월 중 착공한다고 밝혔다.

'힐링시티타워'는 태백문화예술회관과 태백시 제7공영주차장을 연결하는 편의시설로서 높이 43m 타워와 폭 3.5m, 길이 80m인 연결보도교가 설치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98억여 원이다.

'힐링시티타워'내부 공간에 다양한 체험시설(스카이워크, 하늘그네)과 조형물이 설치될 예정으로, 도심 관광자원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태백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활용으로 대형차량 등 주차 문제가 해소되고 주변 관광지 및 생활권에 대한 보행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힐링시티타워가 도심을 연결하는 보행 통로와 도시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지로써 태백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원주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원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확보와 공공기관의 공개의무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550여 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율, 청구처리, 고객만족도 등 4개 분야 12개 지표에 대해 평가가 진행됐으며, 원주시는 지자체-시 유형 평균 83.55점보다 9.76점이 높은 93.31점을 획득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객 수요분석을 진행해 왔고,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홈페이지 내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과 사전공표 정보를 발굴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신뢰받는 원주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서울시, 1조 7천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공급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긴급자영업자금, 포용금융자금 등 2천억원 규모 집중지원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전년 대비 1천억 원 늘린 1조 7천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 신청은 8일부터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고정금리·직접대출 자금' 2천억 원과 희망동행자금·안심금리자금 2.0 등 '변동금리·금리보전자금' 1조 5천억 원을 더한 총 1조 7천억 원 규모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2.5%가 올해 경영상황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가장 바라는 지원정책으로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위기 극복(72.9%)이 가장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다수 소상공인의 바람을 반영하여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는 고금리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금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등의 금융부담 절감을 위해 대환대출 자금인 '희망동행자금'을 총 3천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이며, 2.0% 금리 보전을 제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몰두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희망동행자금' 이용 시 중도상환수수료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를 면제하여 그간 대환대출을 받고 싶었으나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료 부담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차주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채무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3년 1,650억 원 대비 350억 원 늘어난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직접대출 자금 금리를 전년 대비 0.3%p 인하하여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신규 대출 자금 대상 직접대출자금 원리금 상환주기에 월 상환이 추가된다. 기존 분기별 상환으로 고정됐던 원리금 상환 부담 개선을 위해 월 상환을 추가했고, 자금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5천억원 규모 준고정금리자금인 '안심금리자금 2.0' 적용금리를 전년 대비 0.2%p 내린 3.5%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었다.

한편, 환경·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 기조를 반영한 '친환경기업자금'을 5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하여 환경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올해 자금 공급은 대환대출 자금 신규편성, 취약계층 집중지원, 금리인하 등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며 "소상공인들이 대출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특허청, 지식재산권 정보, 보다 쉽게 확인하세요!

특허청, 지식재산권 보호·활용을 위한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발간

특허청은 1월 4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에서 심판까지 모든 절차를 알기 쉽게 풀어 쓴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개요 ▲출원부터 등록, 심판까지의 절차 ▲수수료 납부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단계별로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방법, 유의사항, 수수료 납부 요령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상표 공존 동의제,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특허 등의 수수료 체계 등 신설 또는 개편된 지식재산제도와 ▲특허청 및 산하기관에서 지원하는 주요 시책 등도 수록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금번 책자 발간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지식재산권에 대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안내서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동 안내서는 특허청 누리집에서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고, 1월 8일 이후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시 서구) 및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 지역별 지식재산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최광수/기자

충청북도-제주특별자치도 업무협약식 개최

대표농산물 공급 확대 등 6개 과제 상호 협력 기반 마련

충청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상호 교류 확대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부 협력과제로는 ▲어쩌다 못난이 농산물 등 지역 대표농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협력 ▲농촌 일자리 상생(충북형 도시농부) ▲화장품·뷰티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충북-제주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복지정책 선진화 교류협력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 6건이 선정됐다.

특히 어쩌다 못난이 농산물을 제주도청 구내식당에 공급함과 동시에 지역 농산물 판촉 행사 시 판매·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충북형 도시농부를 제주특별자치도내 농가로 파견함으로써 양 도 농가에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충북도는 그간 충북도 내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된 김영환 도지사표 역점 사업의 외연 확장을 통해 사업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제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지방분권의 효시이자 지방시대의 지향점"이라며,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충북도와 중부내륙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충청북도와 함께 지역특산품을 소외계층에 상호 전달하며 지방사랑을 실천하며 지역협력 모델을 구상할 수 있었고, 오늘 업무협약까지 체결하여 뜻깊었다"라며 "이번 협약이 1차산업과 함께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장애인정책 협력 등 다양한 정책에서 상호협력이 이뤄지도록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양 도지사는 상호 간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으며, '빛나는 역사를 품은 제주에서 미래를 보다'를 주제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충북도청 직원 대상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업, 뷰티 등 충청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점 분야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며, "상호 벤치마킹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도의 경쟁력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대전시-KAIST-MIT, 양자 인재 양성을 위해 뭉쳤다

KAIST-MIT 석학들과 함께하는 양자 정보 겨울학교 개교… 19일까지 진행

대전시와 KAIST는 8일 KAIST 학술문화관에서 양자과학기술 혁신을 이끌어낼 최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KAIST-MIT 양자 정보 겨울학교'개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형 KAIST 총장, 김은성 KAIST 양자대학원장, MIT·KAIST 교수와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해 겨울 특강 개강을 축하했다

양자 정보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MIT와 한국을 대표하는 KAIST의 양자 교수진이 함께하는 'KAIST-MIT 양자 정보 겨울학교'는 양자 정보 과학 분야의 지식과 노하우를 교환하며 참가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노벨상을 수상한 볼프강 케털리(초저온 원자 연구 센터 소장)를 비롯해 세스 로이드(극 양자정보이론 센터소장), 윌리엄 올리버(양자공학 센터 소장) 등 MIT 교수진과 배준우, 문은국, 최재윤 등 KAIST 교수진 등 국내외 세계적인 양자 정보 과학 석학들이 함께한다.

'KAIST-MIT 양자 정보 겨울학교'는 양자 정보 과학 분야에 관심을 가진 전국 학부 3, 4학년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1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1주차(1월 8일~12일)는 MIT 교수진이, 2주차(1월 15일~19일)는 KAIST 교수진이 강의하며 양자 통신, 양자 센싱, 양자 컴퓨팅, 양자 시뮬레이팅 등 양자 정보 전 분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무 측면에서 폭넓은 시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양자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양자 정보 겨울학교를 통해 참가 학생들에게 양자 정보 과학 전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시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양자 정보 겨울학교는 양자 정보 과학 분야의 교류와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내 우수 학부생들과 세계적인 권위의 KAIST-MIT 교수진이 함께 양자 정보 과학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KAIST 주관 양자대학원, 해외 선도 대학·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양자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양자 과학기술과 산업을 선도하는 대덕양자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원호/기자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남원시 · 전북대학교
미래를 이끄는 전북대 Global TOP 100
전북대 글로컬대학30 선정
폐교 서남대가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로
다시 태어납니다!

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준비 열기로 용솟음친다.

경북교육청은 8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업무 담당 교사,전문직원 총 490명을 대상으로'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실현, 수업 중심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구호 아래 학생의 주도성과 삶이 연계된 배움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과정 결정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 대비하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삶의 힘을 키우는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도움 자료' 2종의 활용 방안 안내 △2024학년도 질문이 넘치는 교실 정책 안내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 수업 설계 △새 학년 교육계획 준비 주간과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사례 발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4학년도 질문이 넘치는 교실' 정책 안내와 도교육청에서 개발한 질문 워크북과 질문 공책 활용 실습 연수를 통해 질문에서 출발하여 개념에 이르는 경북형 수업의 표준을 완성하고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한 교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 제공된 자료는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질문 워크북과 공책 활용 실습 연수 또한 학생들과 함께 질문으로 설레고 배우는 수업을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며 삶의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에 잘 적용되고 안착하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교육지원청 영양도서관, 찾아가는 겨울독서교실 운영

지역과 협력을 통해 아동센터에 직접 찾아가는 독서교실 운영

영양교육지원청 영양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1월 15일부터 20일 중 4일간 관내 초등학생 1~6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한다.

도서관이 영양군공립형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찾아가는 이번 프로그램은 '그림책 인문학', '커피박캔들 만들기'등의 그림책을 주제로 하는 독서 지도와 업사이클링 공예 수업을 진행한다.

20일은 특별활동으로 '나의 작은 책, 독서노트'를 만들어 본다. 아이들이 직접 도서관에 방문해 책을 읽고 기록할 수 있는 작은 노트를 만들고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손수진 영양도서관장은 "도서관에서 찾아가는 독서교실을 통해 지역 센터와 협력하고 학생들이 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창작 활동과 독서하는 시간을 통해 즐겁고 따뜻한 방학을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생명 존중 우수동아리 공모전 교육부장관상 수상 쾌거!

상대초등학교(포항) '사랑이' 동아리 활동으로 장관상 수상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23년 학생 생명 존중 우수동아리 공모전'에서 상대초등학교(포항)가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학교 내 생명 존중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장려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부는 전국에서 100교를 선정하여 우수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초.중.고 급별 우수 실적이 있는 3교를 선정해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50만 원을 시상했다.

심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정량평가(동아리 활동 실적과 횟수, 동아리 활동 출석률 80% 이상)와 정성평가(목표 적합성, 동아리 활동 내용, 지역 특성반영)로 진행됐다.

대상을 받은 상대초등학교(포항)의 '사랑이'라는 생명 존중 동아리를 통해'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내용의 동아리 활동을 42회 운영했다.

주요 활동으로 △피켓 문구 만들기 △보물찾기 쪽지 만들기 △고민 상담 답장 써오기 △캠페인 활동 내용 생각해 오기 △생명 사랑 공모전 작품 만들기 △마음 튼튼 체조 활동하기 등을 했다.

김종현 학생생활과장은 "경북교육청은 계속해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현장을 지원하겠다"라며 "마음이 아픈 학생들이 또래 친구들과 소통함으로써 서로 치유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산 강남교육지원청, 맞춤형 학부모 연수 운영

12일까지 학부모 대상 교육 희망 주제 선호도 조사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은 수요자 중심 학부모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학부모연수 희망주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

선호도 조사는 울산학부모지원센터와 강남교육지원청 누리집, 네이버 울산강남학부모연수 밴드에서 참여할 수 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관계 개선', '학업성취도 향상 방법', '인성 함양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자녀교육 전반에 관한 교육 희망 주제를 조사해 올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학부모연수는 온라인 강좌로 운영되는 특별과정과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연수, 자녀와 함께하는 아버지 연수로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월별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울산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으로 학부모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진행한 만족도 설문조사에는 학부모 1,310명이 참여했고, "자녀 양육에 도움 정도"와 "강의 내용 만족도" 항목에서 만족도가 98.5%로 높게 나타났다.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올해도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주제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부모 교육 참여기회를 늘리고 학부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진/기자

부산교육청, 한국관광공사와 한류문화관광 활성화 협력

K-POP 중심 한류 문화 활성화, K-POP 콘텐츠 연계·지원 나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한국관광공사가 8일 한류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K-POP 중심 한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K-POP 중심 한류 문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K-POP 문화 콘텐츠 연계 및 지원 협력 ▲기타 상호간의 한류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2028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부산국제 K-POP 고등학교'의 홍보와 K-POP 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에 이번 협약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2028년 문을 열 '(가칭)부산국제K-POP고등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K-POP 콘텐츠 연계를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관련 산업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5일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중추)에서 발생함에 따라 1월 8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월 8일 10시 기준 전국에서 총 27건이 확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18건(66.7%), 전남 7건(25.9%), 충남 2건(7.4%)이었으며 축종별로는 닭에서 15건(55.6%), 오리는 12건(44.4%)이 발생했다.

최근 유행 중인 H5N6형은 오리에서 폐사율이 낮아 조기 예찰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1월은 영하로 내려가는 기온과 많은 눈으로 소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번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경기 남부의 산란계 주산지(안성·평택)와 인접해 있으므로 인근 농장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1월 5일 오후 충남 천안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 등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인근 지역으로 확산 차단을 위해 충남, 경기 남부 20개 시군, 세종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해 1월 6일 13시부터 1월 7일 13시까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고, 관련된 농장·차량·축산시설 등에 대해 집중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매일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산란계 사육이 많은 중부권 10개 시군의 산란계 농장에 대해 소독 실태 등을 점검하고, 하천 주변 산란계 농장과 축산차량이 이동이 많은 주요 국도(3, 38번) 주변 소독을 강화한다.

둘째, 20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의 출입 차량에 대해 위치 확인 시스템(GPS)을 활용하여 상시 관리·제어하고, 전용 차량 운영 여부 및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및 2단계 소독 조치, 통제초소 설치·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셋째, 행정안전부 등과 합동으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았던 위험 시군(경기 화성·평택·안성·이천·여주, 충북 청주·진천·음성)에 대해 지자체장 중심의 상황관리, 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 지원, 오리농장 검사 등 방역 강화 조치 이행 실태를 합동 점검한다.

넷째, 전국 오리 계열화 사육 농장에 대해 2단계 소독, 농기계·장비 세척·소독, 농장 부출입구 폐쇄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자체에 "올해 겨울 김제와 익산 지역 사례를 볼 때 산란계 농장에서 한번 발생하면 주변 산란계 농장으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천안뿐만 아니라 평택, 안성 등의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고, 기본방역 수칙 미준수 등 미흡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주로 발생하는 양상이므로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 주변 농장을 특별히 관리하여 주시고 낚시, 사진 촬영 등을 목적으로 철새도래지에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 통제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서는 농장주의 기본방역 수칙 준수와 신속한 신고가 가장 중요하므로 지자체, 축산단체, 계열사가 합동으로 축산농장에 방역 수칙 등을 반복하여 교육·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성지아/기자

부천시 상하수도자원사업단, 현장 점검·목소리 청취

1월 3~5일 주요 사업 현장 14곳 살피고 관계자 힘 북돋아

부천시 상하수도자원사업단은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관내 상하수도 시설 및 주요 사업 현장 14곳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은희 부천시 상하수도자업사업단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시설관계자 등 25명이 참여해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방문 첫날은 하수 관련 시설인 남부·북부수자원생태공원, 오정빗물펌프장,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 4곳을 방문했다. 시설에 대한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살펴보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과 주민들의 안전 마련 대책 및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여월천·베르네천 생태하천 복원, 굴포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시민의 강 개·보수 사업 현장 4개소를 둘러보고, 하천 수질 개선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등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송내·소사 1·2배수지와 인근 가압장 등 6개소를 방문해 시설 운영, 보안시설물 구축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시설 유지관리 등에 대해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은희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은 "현장 관계자와 참여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자"고 힘을 북돋웠다.

권동일/기자

경남도, '태영발 위기' 대책 마련에 머리 맞대

8일 건설업계 대표와 만나 대책회의 개최…업계 애로사항 청취

경상남도는 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건설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광역시·경상남도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울산·경상남도회 대표가 참석하여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도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도내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건설사 피해 예방과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금리, 고물가 및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문제 등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최근 시공능력 평가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지역 내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도 발주공사 신속 집행과 지역건설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우리 도는 지역건설사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정부 대책 발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 공유해 나가고 있다"며 "오늘 제시해 주신 건설업계 의견들은 적극 검토·반영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서울시,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든다…4대 분야 빈틈없는 지진방재 종합계획 추진 박차

체계적인 피해 예방 · 대비 위해…지진옥외대피장소 전수 점검, 지진안전체험교육 상시 운영

1월1일 일본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서울시가 지진에 대한 막연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현재 추진중인 지진방재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진에 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는 공공시설물의 100% 내진율을 조기에 달성토록 내진보강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진의 예방부터 대비·대응·복구에 이르기까지 지진재난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진에 대비하고 있다.

시는 지진방재 종합계획의 추진내용을 다음과 같이 4대 분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첫째, 주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둘째, 체계적인 예방·대비책의 확대 셋째, 지진연계 재해대책 마련 마지막으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대응·복구가 그것이다.

시는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매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다.

시는 우선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공공시설물 2,465개소에 대한 내진율을 올해 1월1일 기준 95.4%(2,352개소 확보)에서 203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는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목표한 내진성능 확보 시기인 2035년보다 5년 앞선 것으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한 공공시설물 113개소 중, 올해는 19개소에 대해 202억 원을 투입해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의 도로·수도·하수처리시설, 공동구, 시립병원 등의 내진성능은 100% 확보됐다. 이외에 도시철도(99.8%), 공공건축물(89.7%), 유기(놀이)시설 (22.5%) 등의 내진성능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여 내진보강을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소재 민간건축물의 경우, 올해 1월1일 기준 59만2,320동 중 11만9,669동의 내진성능이 확보(내진율 20.2%)됐으며, 면적 기준으로 환산시 총면적 6억6천제곱미터 대비 내진성능 확보된 건물 면적은 약 4억4천제곱미터(내진율 66.4%)이다.

지진옥외대피장소 전수 점검, 지진안전체험교육 상시 운영,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위험도 측정 등 지진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지진옥외대피장소 1,558개소의 관리·현행화 상태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지진 발생 시 시민이 대피장소를 재빨리 인지하고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는 물론, 관리대장과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지진옥외대피장소는 지진 발생시 낙하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야외장소로, 자치구에서 지정·관리(연2회 정기 점검)하고 있다. 총 1,558개소로 학교운동장 1,016개소 공원 489개소 주차장 등 기타 53개소를 포함한다.

지진옥외대피장소와 지진시민행동요령은 서울안전누리(웹·모바일)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와 지도서비스에서도 '지진대피장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구청사 전광판, 누리집 등에 지진시민행동요령을 상시 홍보해 지진에 대한 대응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진 발생 시 최소한 시민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진대비 교육과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광진·동작·송파·양천·성북 등 5곳에 위치한 안전체험관에서 지진체험훈련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40만 명의 시민이 지진안전체험교육을 받고 있다.

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송파안전체험관(송파구), 목동재난체험관(양천구), 민방위교육장(성북구) 등이 운영 중이며, 지진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지진의 피해 정도를 예측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진가속도계측기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청을 포함해 26개소에 설치된 계측기로 진동을 측정하여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의 피해정도와 위험도를 분석하고 있다.

지진가속도계측기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과 주변 지표면의 가속도를 계측해 지진에 따른 피해 정도와 위험도를 분석하는 장치로, 서울에는 서울시청, 각 구청(광진·동작·종로는 청사 신축후 설치예정), 올림픽대교, 신행주대교, 월드컵대교 등에 설치돼 있다.

지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재난 유형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 화재, 유해 화학물 유출 등에 대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시민 구조를 위한 인명구조·구급, 보건의료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지진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이외에도 화물운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육상화물운송 대책, 지하철 운행 중지 등에 대비한 도시철도 대형사고 대책 등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진재난에 대비한 인명구조 및 구급대책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긴급구조훈련과 교육으로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서울에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가정해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시응소 상황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지진 피해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대응·복구대책을 마련해 대비한다. 재난을 겪은 시민의 심리회복 지원부터 재해구호체계의 확립, 지진재해 원인조사단과 지진피해 위험도평가관리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재난 심리회복 지원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안정 및 일상생활 조기 복귀를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평시에는 상담활동가 교육훈련과 전문가 인력풀을 관리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구호활동과 연계한 현장 상담소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파견해 지원한다.

지진재난 대비 재해구호체계 확립 임시주거시설 지정, 재해구호물자 지원비축 등을 위한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고, 지진 발생시 재해구호상황 총괄 및 현장대응관리 대응책을 마련한다.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및 지진피해 위험도평가관리반 운영 지진의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향후 지진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지진피해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도 포함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다양한 자연재난 중에서도 특히 지진은 얼마나 대비했는가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철저하고 지속적인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진의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대비한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에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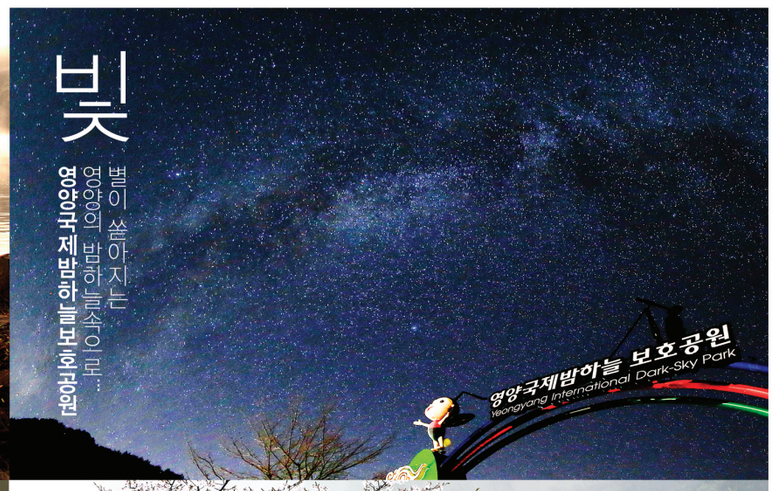
영양 들여다보기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ida INTERNATIONAL DARK-SKY ASSOCIATION
cittaslow
KOREA eco TOURISM 생태관광지역 KOREA ECOTOURISM DESTINATION